



# **인권하루소식**

**합본 20호**

**(제2247호 ~ 제2366호)**

2003. 10



# 차례

부록 인권하루소식 합본 20호 색인

/271

제2247호(2003. 1. 3)

/1

- 1면 ·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원점으로 - 울산지검,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  
· <만화사랑방> 한미SOFA개정의 그날까지! 자주와 평화의 그날까지!
- 2면 · 알몸수색 어떻게 바뀌나 - 경찰청, 훈령 개정 움직임  
· “포장지가 된 느낌이다” - 부정비리 면죄부 사면은 이제 그만

제2248호(2003. 1. 4)

/3

- 1면 · 경찰, 반미집회 엄단? - 촛불시위 강경 대응 비난여론  
· <논평> 촛불의 바다를 가르지 말라
- 2면 · 인터넷 의사표현에 뒤통수 - 경찰, 사회단체에 IP추적 요청  
· 여중생 사망사건, 숨길 게 뭐인가 - 민변, 수사기록공개 청구소송 예정  
·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, 북한은 오지 마라?

제2249호(2003. 1. 7)

/5

- 1면 · <기획> 인간답게 살 권리: 하월곡동 이야기 ① 주거권 - 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  
· <해설>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순
- 2면 · ~1면에서 계속  
· 제2기 객원연구원 및 비상임연구원 공개모집
- 3면 · <김정아의 인권이야기> 아직도 '검문 중'  
· <주간인권호름> (2002년 12월 23일 ~ 2003년 1월 6일)

제2250호(2003. 1. 8)

/8

- 1면 · <기획> 인간답게 살 권리: 하월곡동 이야기 ② 건강권 - 가난과 병마를 한 몸에  
· 입장도 없고 성의도 없다? - 인권단체, 류국현 인권위원 사퇴촉구
- 2면 · ~1면에서 계속  
· <해설> 건강할 권리,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

제2251호(2003. 1. 9)

/10

- 1면 · 이주노동자 대책, 1년 유예로 버틴다? - 연수생 제도 폐지 등 근본대책 시급  
· <해설> 표류하는 '이주노동자 대책'
- 2면 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울산구치소 사망사건, 인권위와 검찰의 진실게임  
· 국가인권위 주요 의견



제2252호(2003. 1. 10)

/12

- 1면 · 검찰, 목격자 진술 안 믿겠다? - '경찰의 김준배 구타' 의문사위 결정 뒤집어
  - <만화사랑방> 류국현 - 반인권 전력 가진 인권위원 선임
- 2면 · 징계, 가압류...노동자 분신·사망 - 비인간적인 노조탄압이 부른 비극
  - 한미당국 소파개정, 말장난 그만! - "한미소파 전면 개정은 국민적 요구"
  - 진주총기사건 경찰관 유죄선고

제2253호(2003. 1. 11)

/14

- 1면 · <속보> 류국현 인권위원 사의표명 - 인권위원 인선절차 공론화 계기 될 듯
  - <긴급논평> 인권위원 공개검증 절차 마련하라
- 2면 · <기획> 인간답게 살 권리: 하월곡동 이야기 ③ 노동의 권리 - 죽도록 일해도 가난만 물려 줄 뿐...
  - <해설> 저임금에 목숨걸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

제2254호(2003. 1. 14)

/16

- 1면 · 가압류 남발, 파업권 꺾이기 뿐 - 배달호 씨 분신계기로 '가압류' 쟁점화
- 2면 · <기고> 백만평 자본 위에 뿌려진 한 노동자의 절규
- 3면 · "류국현 사임, 밀실인선 결과" - 인권단체들, 인권위원 공개검정 절차 요구
  - <주간인권호름> (2003년 1월 7일 ~ 2003년 1월 13일)
  - 제2기 인권운동연구소 연구원 공개 모집

제2255호(2003. 1. 15)

/19

- 1면 · "국가인권위 위협선 넘었다" - 광노현 위원 사퇴...인권위 '전면쇄신' 기로에
  -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『한국어린이·청소년의 인권-진주지역 사례연구』
- 2면 · <한상희의 인권이야기> 법원은 진정 인권탄압의 선봉에 설 것인가
  - <현장스케치> 2003 청년인권워크샵 - "인권마을에서는 교육·의료 등이 모두 공짜"
- 3면 · <기획> 인간답게 살 권리: 하월곡동 이야기 ④ 사회보장권 - 최저생계에도 못 미치는 빈곤
  - <해설>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시급

제2256호(2003. 1. 16)

/22

- 1면 · <긴급진단> 위기의 국가인권위(상) 집행부 따로, 위원들 따로 -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
- 2면 · ~1면에서 계속
- 3면 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'인수위 업무보고', 독립성 훼손 논란... "밥그릇 위해 독립성 내던졌다" 비난
  - <다섯 번째 반딧불> 착한 쿠르드 나쁜 쿠르드, 산 말고는 친구가 없다

제2257호(2003. 1. 17)

/25

- 1면 · 착잡·울분, 거세지는 규탄시위 - 배달호 씨 분신 8일째, 두산불매운동으로
  - <만화사랑방> 목숨줄 자르는 손배·가압류
- 2면 · <긴급진단>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(하) - 인권위 전면쇄신, 위원장이 결단할 때!

제2258호(2003. 1. 18)

/27

- 1면 · 잊혀진 아동권, 궁색한 변명 - 유엔아동권위원회, 한국정부 보고서 심사
  - <논평> '병역거부자'도 양심수의 대열에
- 2면 · ~1면에서 계속
  - <새로 나온 인권비디오>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III

제2259호(2003. 1. 21)

/29

- 1면 · 대우차 경찰폭력, 가해자가 없다니 - 검찰, 경찰책임자 모두 '무혐의' 처분
  - 의문사위, '김준배사건' 법원에 재정신청 - "검찰, 합리적 이유없이 목격자 진술 배척"
- 2면 · <김혜진의 인권이야기> 인간존엄 회복투쟁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
- 3면 · ~2면에서 계속
  - <주간인권호름>(2003년 1월 13일 ~ 2003년 1월 20일)

제2260호(2003. 1. 22)

/32

- 1면 · 22년째 외면된 '삼청교육'의 진실 - 두 번째 백서 발간... "차가운 시선" 난관
- 2면 · <기획> 인간답게 살 권리: 하월곡동 이야기 ⑤ 교육권 - 국가로부터, 사회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<끝>
  -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『평화는 힘이 세다』 『너와 나는 정말 다를까?』

제2261호(2003. 1. 23)

/34

- 1면 · "국가인권위, 이대론 안된다" - 인권단체들, '인권위 위기 대응방안' 논의
  - 오이도역 장애인 참사 2주기... "달라진 게 없다"
- 2면 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인권위 직권조사...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
  -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계획 - 국보법·사회보호법·비정규직 집중검토

제2262호(2003. 1. 24)

/36

- 1면 · 삼청교육 피해자, '할복' 절규 - 22년을 외면해온 세상을 향하여...
  - "노동쟁의에 손배·가압류 청구는 위헌" - 시민사회단체들, 관련법 개정 촉구
  - 백혈병환자 인권위 농성돌입 - "글리벡 약값 인하" 등 촉구
- 2면 · <연재 : 인간답게 살 권리 - 하월곡동> 취재후기
- 3면 · ~2면에서 계속
  - <만화사랑방> '삼청교육', 뜨거운 진실과 차가운 현실

제2263호(2003. 1. 25)

/39

- 1면 · "글리벡 약가 결정은 사형선고" - 백혈병 환자들, 이틀째 인권위 점거농성
  - <논평> 삼청교육 진실찾기, 국가가 나서라
- 2면 · ~1면에서 계속
  - "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" - 손해배상·가압류 족쇄 풀어야

제2264호(2003. 1. 28)

/41



- 1면 · 아동권 이행기구 설립되나? - 필요성 공감, 실체는 미지수  
· “인권위, 민간인학살 직권조사 하라”
- 2면 · <이영일의 인권이야기> 정치의 비민주화와 학살권력의 재생산  
· <주간인권호름> (2003년 1월 20일 ~ 1월 27일)

**제2265호(2003. 1. 29)**

/43

- 1면 ·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- 검찰개혁 토론회, “재정신청 확대, 상설특검제 시행”  
· 발전산업, 흑자 불구 매각방침 강행 - 시민사회단체들, 매각 중단·재논의 촉구
- 2면 ·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“한국아동의 인권” ①

**제2266호(2003. 1. 30)**

/45

- 1면 · <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> 국가인권위, 변화 시작되나  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『저항, 연대, 기억의 정치 1, 2』
- 2면 ·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“한국아동의 인권” ②
- 3면 · <이달의 인권> (2003년 1월)

**제2267호(2003. 2. 4)**

/49

- 1면 · 아동인권 수준 아직도 멀었다 - 유엔아동권리위원회, 한국정부에 권고문 발표  
· 한국 난민정책에 온기류 - 법무부, 4인 난민 인정...후속지원은 전무
- 2면 · <김정아의 인권이야기> ‘인권영화’ 확대하는 인권위  
· <주간인권호름> (2003년 1월 27일 ~ 2월 3일)
- 3면 · <요약>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

**제2268호(2003. 2. 5)**

/52

- 1면 · ‘고용불안’은 OECD 3위 - <포브스>지 조사결과...새정부, 노동유연화 증진해야  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『시민의 권리 - 정보공개청구』
- 2면 ·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“한국아동의 인권” ③ <끝>

**제2269호(2003. 2. 6)**

/54

- 1면 · 인권보다 교정교화가 우선 - 법무부,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또 불허  
· 두산중공업 노조탄압 밝혀질까 - 노동부, 오늘부터 현지 특별조사 돌입
- 2면 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인권위, 누구 눈치 보나  
·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- 교육단체, “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”

**제2270호(2003. 2. 7)**

/56

- 1면 · 백혈병환자들, 노바티스 기습 접거 - “생명을 담보로 배불리지 말라”  
· <만화사랑방> 노동 유연성이 높아지면...
- 2면 · 국민 정보 왜 모으지? - 교육정보시스템 중단 요구 확산  
· 예비군훈련 거부자 선고 연기  
· “교육·문화 통상대상 아니다”

· “미, 한반도 전쟁 준비한다” - 한반도 전력증강 규탄 기자회견 열려

**제2271호(2003. 2. 8)**

/58

- 1면 · “전쟁, 온몸으로 막겠다” - 한국인 3명, 평화 위해 이라크로 출국  
· <논평> 환자들에 대한 ‘사형선고’ 중단하라
- 2면 ·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‘빨간불’ - 법원 “집회장 침탈·강제연행은 위법” 확인  
· <기고> 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에 부처

**제2272호(2003. 2. 11)**

/60

- 1면 · ‘괘씸죄’ 적용한 학생 보복징계 - 용화여고 허성혜 학생 퇴학처분 철회 요구  
· “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” - 백혈병환자들 국가인권위 농성 정리
- 2면 · <한상희의 인권이야기>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 
· <주간인권호름> (2003년 2월 4일 ~ 2월 10일)

**제2273호(2003. 2. 12)**

/62

- 1면 · 주인이 바뀐다고 위험이 사라지나 - 인권단체들, 민영교도소 추진 중단 요구  
· “파병=식민지 점령 지원” - 이라크 공격·파병 반대 요구 고조
- 2면 · “고용인정확보가 차별해소 열쇠” -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대책 마련 토론회 열려  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『근대자본주의사회와 아동 - 아동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조건의 탐색』

**제2274호(2003. 2. 13)**

/64

- 1면 · 두산 노조파괴공작 증거 나와 - 분신사망 대책위, 사측 문서·업무일지 등 공개  
· 인권단체들, 대통령직 인수위에 새정부 인권과제 전달  
· 용화여고 허성혜 학생 퇴학처분 철회키로
- 2면 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3대 인권현안과 인권위에 거는 기대  
· <기자의 눈> 인권위의 이상한 권고

**제2275호(2003. 2. 14)**

/66

- 1면 · <기획>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- 반인권적 법제 청산...‘정권안보’ 그물망 걷어내야  
· <만화사랑방> 평화와 명예를 위한 응징이라고?
- 2면 · <심층분석>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  
· <인터뷰>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경우 변호사 - “현장으로 찾아가는 인권운동 전개할 터”  
· 인권단체들, 인권위 ‘법 형식주의’ 비판

**제2276호(2003. 2. 15)**

/68

- 1면 · “교도소내 산재, 국가가 책임져야” - 서울지법, 턱없이 낮은 ‘위로금’ 지급관행도 제동  
· <논평> 예고된 집단학살, 이라크전쟁을 막아라
- 2면 · <기획>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② -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...권리를 위한 권리, 인권교육!



· <여섯 번째 반딧불> 아르헨티나 노동운동의 새 기운, '빠께메로스'

제2277호(2003. 2. 18)

/70

- 1면 · '그들'이 이라크로 떠난 이유 - 3인3색, 하나의 외침 속에 다양한 반전 목소리
- 2면 · <김혜진의 인권이야기> 어쩔 수 없는 것이란 없다
- <주간인권호름> (2003년 2월 11일 ~ 2월 17일)

제2278호(2003. 2. 19)

/72

- 1면 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'긴급'구제조치, 차라리 이름을 바꿔라
-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「여성권과 '신체에 대한 권리'에 대하여 - 성매매를 중심으로」
- 2면 · <기획>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③ - 과거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... '진실'은 가장 훌륭한 인권 교과서
- <심층 분석> 삼청교육 - 사회적 생명마저 끊어놓은 국가범죄!

제2279호(2003. 2. 20)

/74

- 1면 · 두산중, "간부수첩 내용 사실" - 국회 환경노동위, 사측 부당노동행위 집중 추궁
- 일방적 정리해고에 날개 달아준 대법원 - "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"
- 경찰폭력 근절 대책위 발족 - 집회 촬영 농민 실명 위기 계기
- 2면 · <국회 현장증거> 비판대 오른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
- <판결문 요약> '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' 대법원 판결
- 3면 · <기획>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④ - 인권 관련 국가기구의 개혁... 집안 수리부터 철저히!
- 강신욱, 법무부장관 후보도 안된다!
- <심층 분석> 검찰 개혁 - 무소불위의 권력부터 해체해야

제2280호(2003. 2. 21)

/77

- 1면 · 인권위, '연속 징벌' 관행 제동 - 징벌문제 개선할 총체적 대안까지 내놓아야
- <만화사랑방> '법'은 '자본'의 '신도'일 뿐?
- 2면 · <기획>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⑤ - 시민·정치적 권리의 보장... 국제인권기준으로 권력남용에 고삐를!
- <심층 분석>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 - 통제사회로 가는 정보도둑질 멈춰라

제2281호(2003. 2. 22)

/79

- 1면 · "노동부, 두산 진상조사 강화해야" - 각계 인사 300인 선언... 손배·가압류 해결도 촉구
- <논평> 지하철 참사를 보며 경계해야 할 것들
- 2면 · <기획>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- 경제·사회·문화적 권리의 보장...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, 사회권의 보장
- <심층 분석> 사회복지시설 - 사회복지시설, 닫힌 문을 열어라

제2282호(2003. 2. 25)

/81

- 1면 · 두산중공업 '절반의 진실' - 노동부,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일부 확인
- 허성혜 학생 재정계 위기 - 용화여고, "반성 없이는 용서 없다" 고집
- 2면 · <이영일의 인권이야기> 과거청산 없이 민주와의 완성도 없다
- <주간인권호름> (2003년 2월 18일 ~ 2월 24일)

제2283호(2003. 2. 26)

/83

- 1면 · 공무원노조 지도부 전격 연행 - 검찰은 노조탈퇴 서약서까지 강요
- 헌법소원, 할 테면 알아서 해봐! - 청송감호소, 헌법소원 위임장 배포 불허
- 2면 · <기자의 눈> 살릴 수도 있었던 목숨들!
- <주목할 만한 결정> 불법 긴급체포가 고문 부른다
- 3면 · <기획>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⑦ -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... '소수자'라는 말조차 사라지도록 해야!
- <심층 분석> 성매매 피해 여성 - 현대판 노예제, 성매매의 사슬을 끊어라
- <속보> "에바다 정상화 약속 잊었는가"

제2284호(2003. 2. 27)

/86

- 1면 · 청와대 가는 휠체어 막은 '참여정부' - 경찰 면담요청 장애인 행렬 방패로 봉쇄
- <만화사랑방> 국민이 대통령이라더니...
- 2면 · <기획>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⑧ - 인권옹호를 위한 국제적 책임...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!
- <심층 분석> 해외파병 - 평화는 군사력을 통해 오지 않는다

제2285호(2003. 2. 28)

/88

- 1면 · 민간인 학살 유족들, 무기한 농성 돌입 - 국가인권위 접거...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요구
- 박경순 씨, 양심수 사면 촉구 단식
-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『사회권규약 해설서 1 -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』
- 2면 · <이달의 인권> (2003년 2월)

제2286호(2003. 3. 4)

/91

- 1면 · 전국교사들, NEIS 저지 직접행동 - '반인권 통제시스템' 거부 전국으로 확산
- <소중한 분들을 모십니다> 인권운동사랑방 10돌 기념행사
- 2면 · <김정아의 인권이야기> 두레방 인순 언니
- <주간인권호름> (2003년 2월 25일 ~ 3월 3일)

제2287호(2003. 3. 5)

/93

- 1면 · "용화여고 졸업장 꼭 받을래요" - 학교측 부당징계에 맞선 성혜의 당당한 투쟁
- 어? 3월인데 방학한 학교가 있네 - 경기도교육청, 에바다학교 파행 운영 방지
- 2면 · <인권운동사랑방 10돌 특집> 사랑방 활동가들에게 바란다
- 3면 · <인권운동사랑방 10돌 특집> 활동가들의 회상과 다짐 - 10년의 길 위에 '진보적 인권운동'의 꽃대를 세운다



제2288호(2003. 3. 6)

/96

- 1면 · 노동자 잡는 손배·가압류 잡는다 - '불법'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
· <만화사랑방> 학교괴담 - NEIS
- 2면 · <3·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①> 여성과 노동 - 여성노동자 얽어매는 빈곤과 차별의 늪

제2289호(2003. 3. 7)

/98

- 1면 · "교육개방 안된다"가 세계적 흐름 - WTO 교육개방 반대 국제포럼 열려  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『서준식의 생각』
- 2면 · <3·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②> 여성과 전쟁 - "전쟁은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의 연장"

제2290호(2003. 3. 8)

/100

- 1면 · 청와대, "4월 양심수 석방하겠다" -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포함 여부 주목  
· <논평> 인권위원 밀실인사, 또다시 되풀이할 건가
- 2면 · <3·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③> 여성과 장애 -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 억압이 낳는 잔혹한 일상

제2291호(2003. 3. 11)

/102

- 1면 · 국가인권위, "보안관찰법 반인권적" -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...보안관찰법 폐지·개정 주장  
· <알림> "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" 2003년 국제회의
- 2면 · <한상희의 인권이야기> NEIS - 그 국가감시의 폭력  
· <주간인권호름> (2003년 3월 4일 ~ 3월 10일)

제2292호(2003. 3. 12)

/104

- 1면 · "사회보호법, 한판 붙어보자" -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...헌법소원도 제기돼  
·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, 어디까지 왔나 - "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" 국제회의 열려
- 2면 · "한국정부 미국지원 명분없다" - 인권사회단체, 미 이라크 지원요청 거부 요구  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가보고 싶은 인권자료실 되려면
- 3면 · <발췌 요약> 안드레아스 스펙(반전 인터내셔널):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

제2293호(2003. 3. 13)

/107

- 1면 · 두산, "개인 손배·가압류 취하" - 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...노동법 개정은 과제로 남아  
· <만화사랑방> 투명괴물, 보안관찰제도를 잡아라!
- 2면 · "대체복무제, 평화의 첫걸음" -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국제회의, 대체복무제 도입 한 목소리  
· 경찰, 촛불시위 탄압강도 높이나? - 범대위 관계자 소환장 발부에다 폭력 연행까지

제2294호(2003. 3. 14)

/109

- 1면 · "유엔기준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해야" - 병역거부 해외활동가들, 한국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 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「2002 검열백서」
- 2면 · "아동권 이행기구, 제대로 만들라" - 민간단체들, 보건복지부 일방 추진에 제동  
· <속보> 여중생 범대위 관계자 아직도 안 풀려나  
· <일곱 번째 반딧불> 사복과 이라크의 진실을 만난다

제2295호(2003. 3. 15)

/111

- 1면 · "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고용" - 서울고법 판결...파견법 철폐까지 나아가야  
· <논평> 진정 전쟁의 공모자가 되려 하는가?
- 2면 · "특허청, 백혈병 환자 두 번 죽였다" - 특허청의 근거없는 글리백 강제실시 불허결정 비판 받아  
· 교육개방 반대 합성 일파만파

제2296호(2003. 3. 18)

/113

- 1면 · NEIS 저지, 학생·학부모 나선다 - 학부모 2만명 거부 서명 발표...학생 서명도 수집중  
· 3월 20일! 알찬 행사 다 모였네
- 2면 · <김혜진의 인권이야기> 나의 '동지'들  
· <주간인권호름> (2003년 3월 11일 ~ 3월 17일)

제2297호(2003. 3. 19)

/115

- 1면 · "미 전정범죄의 공범 될 텐가" - 한국군 이라크전 파병방침 철회 요구 확산  
· "이라크 아이들아, 걱정마!" - 아이들이 외치는 '평화'의 합성
- 2면 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인권침해 사건 조사, 나무보다는 숲을 보라

제2298호(2003. 3. 20)

/117

- 1면 · "전쟁은 대량학살을 예고한다" - 이라크인 절반은 어린이...한국 학살 가담 중단 요구 거세  
· <만화사랑방> '21세기 히틀러'의 미친 노래
- 2면 · "나는 결국 소모품이었어..." - 인력감축과 노동강도 강화가 근골격계 직업병 키웠다  
· <해설> 근골격계 직업병이란?

제2299호(2003. 3. 21)

/119

- 1면 · 미국의 폭탄은 바로 이 아이를 겨냥하고 있다! - "우리가 막아야 합니다"...광화문 가득 메운 전쟁 중단 목소리
- 2면 · "병역거부도 또 하나의 반전운동" - 생태주의 병역거부자 최준호 씨 실행 선고  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『나는 평화를 꿈꿔요 - 옛 유고슬라비아 어린이들의 눈에 비친 전쟁의 여러 모습』

제2300호(2003. 3. 22)

/121

- 1면 · 월차 신청한 하청노동자 식칼 테러 - 현대차 아산공장, 하청업체에 계약해지까지 요구



· <논평> 유엔체제의 종말과 새로운 정글 질서의 도래

2면 · <연재>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① - 유엔인권위 회의장 가득 메운 침략국 미국의 오만

**제2301호(2003. 3. 25)**

/123

1면 · “우리를 전범국 국민 만들지 말라” - 파병철회 촉구 메아리...세계가 한국결정 주목한다

2면 · <이창호의 인권이야기> 이라크 전쟁과 인권운동의 과제

· <주간인권흐름> (2003년 3월 17일 ~ 3월 24일)

3면 · <자료> 이라크전쟁에 관한 국제 민간단체 공동성명(안) - 유엔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침략 중단과 이라크인 인권보장에 적극 나서라!

**제2302호(2003. 3. 26)**

/126

1면 · 반전물결, 국회 파병결정 연기시켜 - 파병동의안 재상정 가능성 여전...완전폐기까지 힘 모아

2면 · 윤 교육부총리, “NEIS 시행 중단 불가” - NEIS 인권침해 가능성 일부 인정하기도
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8개월만에 나온 “기간제 교사 차별 말라” 권고

**제2303호(2003. 3. 27)**

/128

1면 · 국가인권위, 전쟁반대 입장 밝혀 - 인권단체, 늦었지만 환영...정치권·일부언론, 인권위 흠집내기

· <만화사랑방> 우리는 반전 삼남매

2면 ·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·유예 오락가락 - 정부,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...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

· 학생 5명, NEIS 관련 국가 대상 손해소송 제기

· 억압과 차별에 맞선 투쟁으로 최옥란을 기억하라

**제2304호(2003. 3. 28)**

/130

1면 · “폭력적 노동강도, 남은 건 망가진 몸” - 전국 노동현장,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예고

· “인권위, 할 말 했다...여야, 무지한 비판” - 인권단체들, 인권위 “전쟁반대” 입장 표명 적극 옹호

2면 · <기획 연재> 소리없는 ‘사형선고’, 사회보호법 ① -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
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『성적 소수자의 인권』

**제2305호(2003. 3. 29)**

/132

1면 · 선준영 유엔대사, 미 풀마니 자처하나 - 인권사회단체들, ‘침략전쟁 불가피’ 망언 강력 규탄

· 파병동의안 처리, 31일로 연기

· <논평> 우리 아이들이 겪는 ‘전쟁’에도 ‘NO’라고 말하자

2면 · <연재>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② - 한국정부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미국 눈치보기: 이라크 특별회의 개최 무산

**제2306호(2003. 4. 1)**

/135

1면 · 생존권 찾으려 새벽길 달려온 화물노동자 - 운송하역노조, 전근대적 지입제·중간착취 철폐 상경투쟁

· “검찰개혁시대 역행하는 검찰총장 후보” - 인권운동사랑방, 반인권적 의식·전력 지닌 송광수 후보 반대 성명

2면 · <이주영의 인권이야기> ‘병’ 보내고 약 보내자는 것인가? - 의료병 파병이 인도적 차원이 라는 해괴한 주장

· <주간인권흐름> (2003년 3월 24일 ~ 3월 31일)

**제2307호(2003. 4. 2)**

/137

1면 · “사내하청업체, 불법 파견의 온상” - 전국 52개 금속산업 사내하청 실태조사 결과 나와

· 다시 시작될 수업, 웃음꽃 핀 에바다학교 - 복지관에 임시 등지 마련...구 재단측, 농아원생 수업 참가 막아

2면 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인권위 노조 설립 움직임...인권위, 분명한 입장 밝혀야

· <기자의 눈> ‘전쟁반대’ 의견서 파문과 소신없는 인권위원의 행보

3면 · <이달의 인권흐름> (2003년 4월)

**제2308호(2003. 4. 3)**

/140

1면 · <성명> 이라크 아이들의 피를 선택한 더러운 국회를 규탄한다

2면 · “이라크 아이들의 피로 내 배 불리겠다” - 침략국 지원병 파병안 국회 통과

· <만화사랑방> 검찰총장 후보, 전투준비완료?

**제2309호(2003. 4. 4)**

/142

1면 · 4·3항쟁 온전한 복원, 남은 과제 많다 - 우익 반발 딛고...진상보고서 한계 딛고 나아가야

· “동성애, 청소년유해매체 기준 될 수 없다” - 국가인권위, 청보법 시행령 심의기준에서 ‘동성애’ 삭제 권고

2면 · <기획 연재> 소리없는 ‘사형선고’, 사회보호법 ② - 보호감호, 빈곤계층을 향한 덧

3면 · <요약> 제주 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채택 - 제주 4·3사건 진상 조사보고서 ‘조사 결론’
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『애들아, 인권공부 하자』

4면 · ~3면에서 계속

**제2310호(2003. 4. 8)**

/146

1면 · “고용허가제도 또 다른 족쇄 채운다” - 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...고용허가제 전면 실시해도 문제

· 정보통신부, “명찰 달고 게시판 글썤라” -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침에 정보인권단체들 강력 반발

2면 · <김철준의 인권이야기> 이제 ‘우리’의 반전운동을 준비하자

· <주간인권흐름> (2003년 3월 31일 ~ 4월 7일)



제2311호(2003. 4. 9)

/148

- 1면 · 반전평화 불꽃, 다시 지핀다 - 귀국한 반전평화팀 9인, 명동성당 노상농성 돌입  
· 사회원로·각계인사 550명, 양심수 전원 석방 촉구 - “양심수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는 민주주의 시금석”
- 2면 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인권위, 정보공개 소송단체 “유명무실” 모독  
· 국가인권위, NEIS 청문회 개최...인권적 판단 빨리 내놔야

제2312호(2003. 4. 10)

/150

- 1면 · 조선노동자 뒤흔 죽음의 공포 - 무리한 1인1조 작업, 산재사망사고 부른다  
· <만화사랑방> 치료중이라니?
- 2면 ·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‘인권과의 전쟁’  
· 5월 23일-28일 제7회 인권영화제 개최 - 이주노동자 인권을 말한다

제2313호(2003. 4. 11)

/152

- 1면 · “1천1백여명 양심수는 왜 제외되나” - 인권단체들,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면 포함 촉구  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『에이즈는 없다 - HIV/AIDS 가설의 옷 벗기기』
- 2면 · <기획 연재> 소리없는 ‘사형선고’, 사회보호법 ③ - 국가가 만들어 내는 ‘되돌이표’ 인생들
- 3면 · <연재>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- 노무현 ‘참여정부’의 ‘인권’없는 ‘인권외교’

제2314호(2003. 4. 12)

/155

- 1면 · “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” - 인권단체들, 법무부에 사상·표현의 자유 의견서 제출  
· <논평> ‘유서’까지 ‘대필’하며 이득을 챙기는 자 누구인가
- 2면 · <연재>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-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

제2315호(2003. 4. 15)

/157

- 1면 · 1인1적제로 가부장적 종속관계 깬다 - ‘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’ 발족...“호주제나 가족부나 매한가지”  
· 구 재단측 졸업생들, 에바다 학생 폭행 - 에바다학교 정상화 방해 목적 구재단측 사주로 의심돼
- 2면 · <박영희의 인권이야기> 장애여성 선희의 4월  
· <주간인권흐름> (2003년 4월 7일 ~ 4월 14일)

제2316호(2003. 4. 16)

/159

- 1면 · “철도파업, 노동자·시민 생명 위한 것” - 철도노조 20일 총파업 예고...대정부 교섭 촉구  
· <철도노동자, 왜 파업 준비하나> 인력충원 없이 죽음의 행렬 멈출 수 없다
- 2면 · 정부, 또 다른 대형참사 준비하나 - 지하철 안전대책 마련 위한 공청회 열려  
· ~1면에서 계속
- 3면 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인권위 국내협력,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

제2317호(2003. 4. 17)

/162

- 1면 · 북한 인권결의안, 유엔인권위 통과 - 해외언론·인권단체들, 결의안 채택 정치적 배경 의심  
· 국가인권위 쇄신 열린회의 국가인권위 항의방문 - 새사회연대 ‘모독’ 사과 받아내  
· <만화사랑방> 전교조, 쓸어버려!
- 2면 · 평화운동가들 겨누는 이스라엘의 총구 - 이스라엘군, ‘국제연대운동’ 평화운동가 잇따라 저격  
· <여덟 번째 반딧불> 모략당한 이들의 분노의 증언, <내 딸 없이>

제2318호(2003. 4. 18)

/164

- 1면 · 이라크 파병 선발대 마침내 출국 - 파병반대 항의시위 곳곳에서 벌어져  
· ‘여성장애인’과 ‘성폭력’의 고리를 끊자! -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토론회 열려
- 2면 · <기획 연재> 소리없는 ‘사형선고’, 사회보호법 ④ - 감옥보다 더 견고한 ‘감옥’, 보호감호소  
· 시민사회단체, “철도노동자 요구, 정당하다”
- 3면 · <연재>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⑤ -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
- 4면 · ~3면에서 계속

제2319호(2003. 4. 19)

/168

- 1면 · 예고된 노동자 분신은 없었지만 - 삼성SDI 악명높은 노동탄압, 분신 부를 수도  
· <논평> ‘인권’을 명분으로 ‘북한 인민의 인권’ 옥죄려 건가
- 2면 · 일본군 성노예·강제징용, ILO에서 해결하자! -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으로 총회 상정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

제2320호(2003. 4. 22)

/170

- 1면 · “사전승인절차가 산재보험의 장벽” -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 열려
- 2면 · <이창호의 인권이야기> 인권에 관한 단상  
· <주간인권흐름> (2003년 4월 14일 ~ 4월 21일)

제2321호(2003. 4. 23)

/172

- 1면 · 사북항쟁, 23년 ‘폭동’ 명에 벗어야 - 폭도로 매도된 사북 광부들, 23주년 기념식 열어  
· 숨죽여왔던 비정규 교사들의 당당한 선언 - 전국 비정규 교사 443인, 차별철폐 촉구
- 2면 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,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

제2322호 (2003. 4. 24)

/174

- 1면 · “경제자유구역, 인권 재앙 부른다” -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위한 범국민대책위 결성돼  
· 병역거부 양심수도 사면해야  
· <만화사랑방> 전쟁광이 쏘아 올린 공포탄
- 2면 · “아동권 이행기구, 독립성·실효성 갖춰야” - 보건복지부,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개최  
· 미국의 전쟁 광기를 고발한다 - 7회 인권영화제, 미 정부 학살 고발 영화 상영

제2323호(2003. 4. 25)

/176



- 1면 · 인권위, “이등병 자살 가혹행위 탓” - 국방부에 수사의뢰...군가협, 인권위가 고발했어야  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「지문날인 반대연대 백서」
- 2면 · <기획 연재> 소리없는 ‘사형선고’, 사회보호법 ⑤ - ‘고무줄’ 보호감호 집행, 피감호자 황폐  
화시킨다  
· 사회당, 국제형사재판소에 노 대통령 기소 신청 - 실제 기소 여부는 미지수

**제2324호(2003. 4. 26)**

/178

- 1면 · 서울대공원 환경미화노동자 철야농성 - 노예처럼 부려먹던 용역업체, 하루아침에 일터 빼앗  
아  
· <논평> 새정부 첫 사면, 인권개혁 변죽만 올린 건가
- 2면 · NEIS 반대운동, 학생들도 직접 나섰다 - 학생단체들, 학생 동의거부서 1,700여장 국가인권  
위에 전달  
· ~1면에서 계속

**제2325호(2003. 4. 29)**

/180

- 1면 · 한 동성애자의 죽음을 통한 절규 - 20살 꽃다운 나이...동성애자 차별없는 세상 먼저 찾아가
- 2면 · <이주영의 인권이야기> 반전평화수업, 심판대에서 내려라!  
· <주간인권흐름> (2003년 4월 21일 ~ 4월 28일)
- 3면 · <연재>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⑥ <끝> - 유엔인권위 난항 속 폐막...정치 흥정 장소로  
전락

**제2326호(2003. 4. 30)**

/183

- 1면 · “양심수 1%밖에 못 나왔다” - 양심수 1164명 여전히 투옥...인권단체들, 선별사면 규탄  
· “동성애자 윤모 씨 죽음은 사회적 타살” - 33개 인권사회단체, 동성애자 차별 철폐 촉구 성  
명
- 2면 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인권위 전략 논의, 인권단체들이 나선다  
· 주요 사면·복권자 명단

**제2327호(2003. 5. 1)**

/185

- 1면 · 불교신자 김도형 씨, 병역거부 선언 - 불교·인권단체들, “언제까지 양심을 철창 안에 가둘  
건가”  
· <만화사랑방> “나이스”를 경배하라
- 2면 · 이달의 인권 (2003년 4월)

**제2328호(2003. 5. 2)**

/187

- 1면 · 이홍록 변호사 새 인권위원 임명 - 경력과 소신 갖춘 인물 다행...밀실인선 되풀이하는 문제  
· “노동자의 이름을 빼앗지 말라” - 노동절에 올려 퍼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규
- 2면 · <기획 연재> 소리없는 ‘사형선고’, 사회보호법 ⑥ <끝> - 보호감호제도에 마침표를 찍자!

**제2329호(2003. 5. 3)**

/189

- 1면 · 국회 앞, 피학살 영혼 해원곳 - 학살규명 통합특별법 촉구 농성 64일째 맞아  
· <논평> 이라크 민중에 대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
- 2면 · “이건 건설현장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” - 한해 7백 명씩 죽어나가는 건설...이주노동자는  
과약도 안돼  
· 억압당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 - 올 인권영화제 국내 상영작, <우리는 이주노동자다> 등 12  
편 확정

**제2330호(2003. 5. 7)**

/191

- 1면 · “의문사특별법 개정 과제 산적” - 의문사위원회 2기 활동 앞두고 법 개정 공청회 열려  
· 교육부, NEIS 강행에서 한발 물러서나 - 전교조·교육부 실무협의, CS제가동 검토
- 2면 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인권위 뒤편 ‘대립조정’ 아닌 ‘인권적 판단’...NEIS에  
대한 정책 판단, 인권 원칙에 충실해야  
· <기자의 눈> 인권위 밀실인선, 관행으로 굳어지나?
- 3면 · <기고>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(상) -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

**제2331호(2003. 5. 8)**

/194

- 1면 · “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” - 민변,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 
· <만화사랑방> 노동자의 공동묘지 - 건설현장
- 2면 · <인터뷰>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- “무노조 신화, 초기업 노조로 맞선다”  
· 험난한 남미 역사 기록한 3편의 영화

**제2332호(2003. 5. 10)**

/196

- 1면 · “김준배 폭행경찰 무혐의 정당” - 광주고법, 김준배 사망관련 의문사위 제정신청 기각  
· <논평> 권력의 입맛에 맞는 ‘사상’을 진상하라는 것인가
- 2면 · 실체 드러나 김천현무소 집단학살 - 매장 동위 주민 증언...현장에서 유골·타피 등 발굴  
· 김준배 씨 폭행치사사건 관련 주요일지

**제2333호(2003. 5. 13)**

/198

- 1면 · 인권위, “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” -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...교육부 수용여부 주목
- 2면 · <김철준의 인권이야기> 인권의 감수성  
· <주간인권흐름> (2003년 4월 28일 ~ 5월 12일)
- 3면 · <기고>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(하) - ‘참여정부’ 인권외교,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

**제2334호(2003. 5. 14)**

/201

- 1면 · 대법 “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” - 대법 냉전논리 교수...한총련 문제 해결 역풍 우려  
· 강 법무, “보호감호제, 획기적 안 준비할 것” -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...강금실 법무부 장  
관 면담
- 2면 · 안동교도소 재소자, 징벌 받던 중 사망 - 징벌 따른 울분으로 자살한 듯...징벌제도 대대적  
정비 시급



제2335호(2003. 5. 15)

/203

- 1면 · 동성애자 공격한 에이즈 관련 보도 -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주범으로 '동성애자' 지목  
· <만화사랑방> "힘도 좋아, 아직도야?"
- 2면 · 미 전쟁범죄 증언한다 - 이라크 민간인 피해 고발 사이트 개설  
· 교육부 "인권위 권고 수용" 약속 반복 반발 거세  
· 최장기수 김선명의 '보이지 않은 전쟁', <선택> - 갇힌 삶 사실적으로 재현...인권영화제 개막작 선정

제2336호(2003. 5. 16)

/205

- 1면 · "팔레스타인 민중 학살 중단하라" - 세계병역거부자의 날, 이스라엘을 향한 외침  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『정신분석학, 문학, 정치의 측면에서 본 여성장애인』
- 2면 · 아체의 핏빛 역사, 또다시 재현되나 - 인도네시아 군부, 반군소탕 전투태세 돌입  
· "언제까지 목숨 걸고 이동해야 하나" - 도시철도공사, 장애인 추락사고 발뻘하기 급급

제2337호(2003. 5. 17)

/207

- 1면 · 현재, '불법파업 제조기' 옹호 -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"직권중재 합헌" 결정  
· <논평>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
- 2면 · <지상중계> 사상 초유의 민·관 합동 행정개혁 토론회

제2338호(2003. 5. 20)

/209

- 1면 · "교육정보위, 교육부 거수기 불과" - 교육·인권사회단체들, 인권위 NEIS 권고 '전면' 수용 촉구
- 2면 · <박영희의 인권이야기> 장애인은 마네킹이 아니다  
· <주간인권호름> (2003년 5월 12일 ~ 5월 19일)

제2339호(2003. 5. 21)

/211

- 1면 · 정부,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-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·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 
· "이동권 보장, 서울시에 마지막 기회 준다" - 발산역 추락사고 1주기...이동권연대, 4대 요구안 제시
- 2면 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인권위 권고, 후속 대응 절실...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

제2340호(2003. 5. 22)

/213

- 1면 · 대통령 한마디에 '난동'된 시위 - 사회각계, 한총련 사법처리 방침 규탄  
· <만화사랑방> 도대체 누가 누굴 굴복시키려는 거지?
- 2면 · 정보통신부, 정보인권 개념조차 없다 - 정보인권단체들, "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활용 안될 말"  
· 7회 인권영화제가 선사하는 특별한 만남 -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개막식과 특별행사 풍성

제2341호(2003. 5. 23)

/215

- 1면 · "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" - 대법,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 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「59차 유엔인권위 북한인권 결의안과 북한인권 접근법」
- 2면 · 제7회 인권영화제 상영 일정  
· "정부 이성 되찾으라" - 청와대 앞 규탄집회 이어져
- 3면 · <성명>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? -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

제2342호(2003. 5. 24)

/218

- 1면 · 7회 인권영화제 막 올라 - '이주노동자 인권' 주제...개막작 <선택> 감동의 한마당  
· <논평> '인권'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
- 2면 · "학생정보, 학교 안으로 돌려보내라" - 인권단체·민교협·민변, 네이스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  
· "잠자고 있는 학살규명 특별법안을 깨우자" - 전국 유족들 상경투쟁...6월 임시국회 특별법 제정 촉구

제2343호(2003. 5. 27)

/220

- 1면 · 네이스 개인정보항목 잠정 중단 - 교육부·전교조 협상 극적 타결...고3 인권침해문제 남아  
· 청송 피감호자, "사회보호법 폐지" 단식농성 - 참가자 6백여명으로 불어나...법무부 공식 대책 요구
- 2면 · <이창호의 인권이야기>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 
· <주간인권호름> (2003년 5월 19일 ~ 5월 26일)

제2344호(2003. 5. 28)

/222

- 1면 · "사회보호법, 야만의 벽 허물어야" - 피감호자 단식 5일째...인권단체들,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
- 2면 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"말문은 뗐지만 깊은 대화 부족했다"...인권위, 4개 지역 인권단체들과 간담회 가자

제2345호(2003. 5. 29)

/224

- 1면 · 에바다 문 드디어 열렸다 - 민주 이사진, 불법점거된 에바다 1년 반만에 되찾아  
· <만화사랑방> 입맞춰 깨워라
- 2면 · "리프트 한번 타 보세요" - 중증장애인, 이동권 보장 요구하며 지하철 철로 점거시위 벌여  
· 7회 인권영화제 막 내려 - 올해의 인권영화상, 김성환 감독의 <김종태의 꿈>

제2346호(2003. 5. 30)

/226

- 1면 · 인권침해 '덜' 하겠다? - 법무부 보호감호 개선안 발표... "단식 무마용 미봉책" 반발  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「인권, 그 위선의 역사」
- 2면 · "경제자유구역법, 인권침해 종합세트" -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 
· "한총련 탄압 두고 보지 않겠다" - 한총련 5월 축전 평화적 개최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



제2347호(2003. 5. 31)

/228

- 1면 · 에바다 정상화 막판 진통 - 최성창 전 이사장 퇴거 불응...오늘 대규모 집회 예정  
· <논평> 청송 집단단식, 정녕 외면하려는가
- 2면 · <이달의 인권흐름> (2003년 5월)

제2348호(2003. 6. 3)

/231

- 1면 · 지뢰 몇 개 빼고 네이스 재가동 - 고2이하도 네이스 허용...인권침해 항목 여전히 포함  
· 대법, "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" - <레드헌트>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
- 2면 · <이주영의 인권이야기> 에바다의 숙제  
· <주간인권흐름> (2003년 5월 26일 ~ 6월 2일)

제2349호(2003. 6. 4)

/233

- 1면 · 최성창 전 에바다이사장 전격 연행 - 경기도경 압수수색 단행...에바다 정상화에 일대 전기 마련  
· "사회보호법은 사회정착의 걸림돌" - 청송 출소자들, 사회보호법 폐해 고발...피감호자 단식 풀어
- 2면 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인권위, 검찰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
- 3면 · ~2면에서 계속

제2350호(2003. 6. 5)

/236

- 1면 · '정상'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- 인권사회단체들,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  
· <만화사랑방> "인적자원강탈부, 납시오"
- 2면 · 종묘공원까지 집회금지구역으로? -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집시법 개악안 발의  
· 제7회 인권영화제를 돌아본다 <상> - 최초 제작지원, 이주노동자 움니버스 진한 감동

제2351호(2003. 6. 6)

/238

- 1면 · "교회는 신앙의 폭력 멈춰라" - 기독교청년들, 동성애자 윤현석 씨 추모예배 열어  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「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한국정부 2차보고서 관련 자료집」
- 2면 · 화장실도 부엌도 없는 집, 법으로 없애자! - 주택보급률 100% 시대, 최저주거기준 법제와 토론회 열려  
· 제7회 인권영화제를 돌아본다 <하> - 도전에 직면한 '무료상연' 원칙

제2352호(2003. 6. 10)

/240

- 1면 · 의료단체에 덧씌운 '이적' 올가미 - '진보의련' 이적단체 판결...무리한 국보법 적용 비판  
· 에바다 새벽 폭력난입자들, 전원 불구속 처리 - 평택 검·경의 구재단 편들기, 에바다 정상화 가로막아
- 2면 · 골프장 노조탄압, 꼬리 문다 - 경기보조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려  
· 주간인권흐름 (2003년 6월 2일 ~ 6월 9일)

제2353호(2003. 6. 11)

/242

- 1면 · "버마군부, 정치 테러 멈춰라" - 국내 인권단체들·NLD한국지부, 아웅산 수지 석방 촉구  
· 장애인학생 지원 네트워크 뚝뚝 - 장애인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차별 철폐 위한 연대체 출범
- 2면 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"466일간 가족수감 채운 것은 인권침해" - 인권위, 헌재에 계구 사용 관련 의견서 제출키로  
· <기자의 눈> 유현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'소신' 발언 - 논쟁 그만하고 네이스 시행하자고?

제2354호(2003. 6. 12)

/244

- 1면 ·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-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...“공개 안돼도 손해 발행”
- 2면 · 흉구생명 노조파괴공작, 현실화되나 - 사측 문건대로 노조와 노조간부에 손해배상 청구  
· "내 개인정보, 탐내지 말라" - 졸업생들, 네이스 손해소송 제기  
· <만화사랑방> 지금은 어린 '춧불'이지만...

제2355호(2003. 6. 13)

/246

- 1면 · 6월 국회, 연수제 꼭 폐지해야 - 국회앞 노상 단식농성...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 촉구  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「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- 인권의 무덤 청송감호소」
- 2면 · "교류 확대와 식량난 해결부터"..."적극 개입" - 북한인권문제 접근방식 토론회, 다양한 시각 재확인  
· "평택 검찰·경찰 특별감찰 실시하라"  
· 경찰, "최루탄 사용 의지 변함없다"

제2356호(2003. 6. 14)

/248

- 1면 · "우리도 이적단체다!" - 각계 대표들, 진보의련 이적 판결 강력 규탄  
· <논평> 가족수감 사용은 '고문'이다
- 2면 · 해고된 환경미화노동자들, "서울시가 나서라" - 길바닥 나앉은 서울대공원 노동자들, 서울시 청 항의방문  
· 16일 '경제자유구역 폐기' 노숙농성 돌입 - 시행령 17일 통과 예정...노동인권단체들, 곳곳 저지 투쟁

제2357호(2003. 6. 17)

/250

- 1면 ·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임박 -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...다음주께 통과 전망  
· 인권단체들,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 돌입키로  
· 에바다 농아원생 5명, 사흘째 행방 묘연 - 농아원 측 경찰에 납치 신고...구 비리재단 측 소행으로 추정돼
- 2면 · <김철준의 인권이야기> 연예인의 인권은 무관심에서 출발한다  
· <주간인권흐름> (2003년 6월 9일 ~ 6월 16일)

제2358호(2003. 6. 18)

/252

- 1면 ·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- 공공부문 실태조사...사람까지 '물자'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



- “국회는 유족들 가슴에 소금 뿌리지 말라” - 민간인학살 유족 증언대회...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
- 2면 · 청송 피감호자 616명,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- 공대위,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

**제2359호(2003. 6. 19)**

**/254**

- 1면 · “태풍과 싸우며 정보인권 지킬 터” - 인권활동가 네이스 강행 철회 단식농성...각계 저지행 동도
  - <만화사랑방> ‘최저’임금제라뇨? ‘최고’임금제예요
- 2면 ·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<상> - 사회권 옹호를 위한 지구적 연대의 출발
  - 민중의 힘, 사회권 운동의 기초

**제2360호(2003. 6. 20)**

**/256**

- 1면 · 뒷걸음질치는 근골격계 대책 - 규제개혁위, 재계 요구 대폭 수용한 산재 기준 발표해
  -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『왼쪽에서 본 지적재산권』
- 2면 · 병역거부 다큐 지원이 반국가적 활동? - 법사위, 지원금 회수에 기구 축소까지 거론하며 인 권위 맹공
  - 여성 철도노동자 아픔 담은 다큐 <소금> - 모성까지 짓밟는 살인적 노동현실 고발해

**제2361호(2003. 6. 21)**

**/258**

- 1면 · 민간인학살 특별법 처리 무산 - 투쟁본부, “이병석 위원, 유족 두 번 죽였다”
  - “호주제 폐지” 국회 건널목 상징 시위
  - <논평> 정부는 정보인권 보장 요구에 답하라
- 2면 ·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<중> - 유엔내 사회권, 어디까지 왔나...사회권 실현을 위한 유엔 특별보고관 활동

**제2362호(2003. 6. 24)**

**/260**

- 1면 · ‘제 맘대로 징벌’, 뿌리뽑히려나 - 인권위, 법무부에 징벌 개선 권고...구체성 미흡 아쉬워
  - “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 막자” - 인권사회단체, ‘빅 브라더 주간’ 선포...정보인권 보장 촉구
- 2면 · <박영희의 인권이야기> “엄마가 장애인이니까...”
  - <주간인권흐름> (2003년 6월 16일 ~ 6월 23일)

**제2363호(2003. 6. 25)**

**/262**

- 1면 ·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- 독립적 조사와 심판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수반돼야
  -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
  - “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” - 장애인계 활동가 30인 선언발표...인권활동가 지 지 단식도
- 2면 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일회적 징벌 개선책 제시로는 안돼
  - <특별 기고> 김선미 (고3, ‘청소년의 힘’ 회원) - 학생의 눈으로 본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

인

**제2364호(2003. 6. 26)**

**/264**

- 1면 · “교육정보위, 전면 재구성해야” - 52개 단체, 총리실 일방 추진 비판...단식중 인권활동가 쓰 러져
  - “피난처 얻기도 힘들지만, 얻어도 지원은 전무” -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지엄 열려... 한 국 난민보호제도 문제점 짚어
- 2면 ·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<하> - ‘위로부터의 세계화’와 인권운동
  - <만화사랑방> 개인정보 다 내놔!

**제2365호(2003. 6. 27)**

**/266**

- 1면 · 노동계,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- “최저임금제 전면 개선돼야”...사용자 측, 53만원선 고집
  - 외국인 지문날인만 인권침해인가? - 지문날인반대연대, ‘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’ 인권위에 진정
- 2면 · 참담한 ‘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’ - 인권단체들, 466일간 가족수감 책임자 고발...고문 중단 촉구
  - 에바다 구 비리재단 직원 양봉애 씨 긴급체포
  - 레미콘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투쟁 - 영화 <노동자다 아니다> 완성 앞뒤

**제2366호(2003. 6. 28)**

**/268**

- 1면 · “교육정보위, 밀실 구성 그만” - 인권사회단체, 정부에 공청회 제안...공대위 구성키로
  - <논평> 56만원을 ‘최저임금’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
- 2면 · “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의 벽 뚫자!” - 장애인계, 공청회 열고 법 제정 움직임 본격화
  - <진단> 철도관련법안, 무엇이 문제인가 - 상업화된 경쟁체제로의 철도 전환 노린다

**부록 인권하루소식 합본 20호 색인**

**/271**







스소투하독의

인사 호오S 복합

# 색인 찾아보기

## <경제·사회·문화적 권리>

노동	/272
· 비정규노동	
· 특수고용직	
· 노동권·노동조건	
· 노동건강/ 직업병	
· 노동조합결성권·교섭·파업권	
· 배달호씨 분신과 손배·가압류	
· 전교조/ 공무원노조	
· '노동 일반' 관련 사례 (철도/홍국생명/삼성)	
생존권/빈곤	/275
사회복지/사회보장	/275
주거권	/275
건강권	/276
· 글리백	
교육권	/276

## <시민·정치적 권리>

생명권	/276
· 대형참사	
고문·가혹행위	/277
· 경찰폭력·군폭력/ 군의문사	
· 징벌/계구사용	
프라이버시	/278
· 정보기본권	
· 네이스(NEIS) 저지 투쟁	
· 지문날인	
사상·양심·종교의 자유	/279
· 준법서약/사상전향제도	
· 국가보안법	
· 한총련	
· 진보의련	
· 보안관찰법	
· 장기수·양심수	
·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	
표현의 자유	/281
·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	
집회·결사의 자유	/282

· 집회 및 시위의 자유

## <소수자>

이주노동자	/282
·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	
난민	/283
여성	/283
· 성폭력·성희롱/가정폭력	
· 성매매	
· 여성노동권	
· 호주제/개인별 신분등록제	
어린이·청소년	/283
장애인	/284
· 이동권	
· 교육권	
· 장애여성	
동성애자	/285

## <국제>

유엔인권기구	/286
· 유엔아동권리위원회	
· 유엔인권위원회	
국제형사법원(재판소)	/286
지역인권상황	/287
· 아시아	
· 북한	
· 미국	
· 중동	

## <특별 주제>

국가기구나 인권	/287
· 국가인권위원회	
· 권고 및 구제 결정 관련	
· 인권위원 선임 및 행보	
· 경찰	
· 검찰	
· 법원	
시설수용자와 인권	/291
· 에바다 사건(청각장애아 시설)	
· 외국인보호소	
감옥·유치장 수용자와 인권	/291
· 사회보호법/보호감호제	
신자유주의와 인권	/293

· 교육개방	
· 사영화/ 해외매각	
· 경제자유구역(경제특구)	
미국과 인권	/294
· 주한미군과 인권	
· 소파협정	
·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	
과거청산/불처벌	/294
·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	
· 삼청교육대	
· 의문사	
·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	
인권교육	/295
평화	/296
· 이라크전쟁과 한국군파병	
인권일반	/297
인권활동가	/297

## <기획>

· 인간답게 살 권리 -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이야기	/297
·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"한국 아동의 인권"	/297
· 새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	
· 3·8 세계 여성의 날 특집	
· 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	
· 소리없는 '사형선고', 사회보호법	
·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	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	

## <인권하루소식 고정란>

논평	/300
인권이야기	/301
만화사랑방	/302
클릭! 인권정보자료	/303
인권영화/7회 인권영화제	/303
주간인권흐름	/304
이달의 인권	/305
기타	/305



## 경제 · 사회 · 문화적 권리

-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<상> - 사회권 옹호를 위한 지구적 연대의 출발(6.19 2면 2359호) /255
- 민중의 힘, 사회권 운동의 기초(6.19 2면 2359호) /255
-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<중> - 유엔내 사회권, 어디까지 왔나...사회권 실현을 위한 유엔 특별보고관 활동(6.21 2면 2361호) /259
-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<하> - '위로부터의 세계화'와 인권운동(6.26 2면 2364호) /265

## 노동

### ▷비정규노동

- <해설> 저임금에 목숨걸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(1.11 2면 2253호) /15
- <김혜진의 인권이야기> 인간존엄 회복투쟁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(1.21 2-3면 2259호) /30-31
-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계획 - 국보법·사회보호법·비정규직 집중검토(1.23 2면 2261호) /35
- "고용인정확보가 차별해소 열쇠" -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대책 마련 토론회 열려(2.12 2면 2273호) /63
- "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고용" - 서울고법 판결...파견법 철폐까지 나아가야(3.15 1면 2295호) /111
- 월차 신청한 하청노동자 식칼 테러 - 현대차 아산공장, 하청업체에 계약해지까지 요구(3.22 1면 2300호) /121
- "사내하청업체, 불법 파견의 온상" - 전국 52개 금속산업 사내하청 실태조사 결과 나와(4.2 1면 2307호) /137
- 숨죽여왔던 비정규 교사들의 당당한 선언 - 전국 비정규 교사 443인, 차별철폐 촉구(4.23 1면 2321호) /172
- 서울대공원 환경미화노동자 철야농성 - 노예처럼 부려먹던 용역업체, 하루아침에 일터 빼앗아(4.26 1-2면 2324호) /178-179
- 해고된 환경미화노동자들, "서울시가 나서라" - 길바닥 나앉은 서울대공원 노동자들, 서울시청 항의방문(6.14 2면 2356호) /249
-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- 공공부문 실태조사...사람까지 '물자'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(6.18 1면 2358호) /252
- <만화사랑방> '최저'임금제라뇨? '최고'임금제예요(6.19 1면 2359호) /254
- 노동계,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- "최저임금제 전면 개선돼야"...사용자 측, 53만원선 고집(6.27 1면 2365호) /266
- <논평> 56만원을 '최저임금'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(6.28 1면 2366호) /268

### ▷특수고용직

- 생존권 찾으러 새벽길 달려온 화물노동자 - 운송하역노조, 전근대적 지입제·중간착취 철폐 상경투쟁(4.1 1면 2306호) /135
- "노동자의 이름을 빼앗지 말라" - 노동절에 올려 퍼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규(5.2 1면 2328호) /187
- 골프장 노조탄압, 꼬리 문다 - 경기보조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려(6.10 2면 2352호) /241

### ▷노동권·노동조건

- '고용불안'은 OECD 3위 - <포브스>지 조사결과...새정부, 노동유연화 중지해야(2.5 1면 2268호) /52
- <만화사랑방> 노동 유연성이 높아지면...(2.7 1면 2270호) /56
- 일방적 정리해고에 날개 달아준 대법원 - "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"(2.20 1면 2279호) /74
- <판결문 요약> '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' 대법원 판결(2.20 2면 2279호) /75
- <만화사랑방> '법'은 '자본'의 '신도'일 뿐?(2.21 1면 2280호) /77
- 노동계,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- "최저임금제 전면 개선돼야"...사용자 측, 53만원선 고집(6.27 1면 2365호) /266
- <논평> 56만원을 '최저임금'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(6.28 1면 2366호) /268

### ▷노동건강/ 직업병

- "나는 결국 소모품이었어..." - 인력감축과 노동강도 강화가 근골격계 직업병 키웠다(3.20 2면 2298호) /118
- <해설> 근골격계 직업병이란?(3.20 2면 2298호) /118
- "폭력적 노동강도, 남은 건 망가진 몸" - 전국 노동현장,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예고(3.28 1면 2304호) /130
- 조선노동자 덮친 죽음의 공포 - 무리한 1인1조 작업, 산재사망사고 부른다(4.10 1면 2312호) /150
- "사전승인절차가 산재보험의 장벽" -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 열려(4.22 1면 2320호) /170
- "이건 건설현장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" - 한해 7백 명씩 죽어나가는 건설...이주노동자는 파악도 안돼(5.3 2면 2329호) /190
- <만화사랑방> 노동자의 공동묘지 - 건설현장(5.8 1면 2331호) /194
- 뒷걸음질치는 근골격계 대책 - 규제개혁위, 재계 요구 대폭 수용한 산재 기준 발표해(6.20 1면 2360호) /256

### ▷노동조합결성권·교섭·파업권

- 현재, '불법파업 제조기' 옹호 -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"직권중재 합헌" 결정(5.17 1면 2337호) /207
- 정부,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-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·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(5.21 1면 2339호) /211
- "정부 이성 되찾으라" - 청와대 앞 규탄집회 이어져(5.23 2면 2341호) /216

### ▷배달호 씨 분신과 손해배상·가압류

- 징계, 가압류...노동자 분신·사망 - 비인간적인 노조탄압이 부른 비극(1.10 2면 2252호) /13



· 가압류 남발, 파업권 꺾이기 뿐 - 배달호 씨 분신계기로 '가압류' 쟁점화(1.14 1면 2254호)	/16
· <기획> 백만평 자본 위에 뿌려진 한 노동자의 절규(1.14 2면 2254호)	/17
· 착잡·울분, 거세지는 규탄시위 - 배달호 씨 분신 8일째, 두산불매운동으로(1.17 1면 2257호)	/25
· <만화사랑방> 목숨줄 자르는 손배·가압류(1.17 1면 2257호)	/25
· “노동쟁의에 손배·가압류 청구는 위헌” - 시민사회단체들, 관련법 개정 촉구(1.24 1면 2262호)	/36
· “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” - 손해배상·가압류 족쇄 풀어야(1.25 2면 2263호)	/40
· 두산중공업 노조탄압 밝혀질까 - 노동부, 오늘부터 현지 특별조사 돌입(2.6 1면 2269호)	/54
· 두산 노조파괴공작 증거 나와 - 분신사망 대책위, 사측 문서·업무일지 등 공개(2.13 1면 2274호)	/64
· 두산중, “간부수첩 내용 사실” - 국회 환경노동위, 사측 부당노동행위 집중 추궁(2.20 1면 2279호)	/74
· <국회 현장중계> 비판대 오른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(2.20 2면 2279호)	/75
· “노동부, 두산 진상조사 강화해야” - 각계 인사 300인 선언...손배·가압류 해결도 촉구(2.22 1면 2281호)	/79
· 두산중공업 '절반의 진실' - 노동부,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일부 확인(2.25 1면 2282호)	/81
· 노동자 잡는 손배·가압류 잡는다 - '불법'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(3.6 1면 2288호)	/96
· 두산, “개인 손배·가압류 취하” - 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...노동법 개정은 과제로 남아(3.13 1면 2293호)	/107

### ▷▷전교조

· <논평> '유서'까지 '대필'하며 이득을 챙기는 자 누구인가(4.12 1면 2314호)	/155
· <만화사랑방> 전교조, 쓸어버려!(4.17 1면 2317호)	/162
· <이주영의 인권이야기> 반전평화수업, 심판대에서 내려라!(4.29 2면 2325호)	/181

### ▷▷공무원노조

· 공무원노조 지도부 전격 연행 - 검찰은 노조탈퇴 서약서까지 강요(2.26 1면 2283호)	/83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인권위 노조 설립 움직임...인권위, 분명한 입장 밝혀야(4.2 2면 2307호)	/138

### ▷▷'노동 일반' 관련 사례

#### ▷▷▷철도

· “철도파업, 노동자·시민 생명 위한 것” - 철도노조 20일 총파업 예고...대정부 교섭 촉구(4.16 1면 2316호)	/159
· <철도노동자, 왜 파업 준비하나> 인력충원 없이 죽음의 행렬 멈출 수 없다(4.16 1-2면 2316호)/159-160	
· 시민사회단체, “철도노동자 요구, 정당하다”(4.18 2면 2318호)	/165
· <진단> 철도관련법안, 무엇이 문제인가 - 상업화된 경쟁체제로의 철도 전환 노린다(6.28 2면 2366호)	/269

### ▷▷▷흥국생명

· 흥국생명 노조파괴공작, 현실화되나 - 사측 문건대로 노조와 노조간부에 손해배상 청구(6.12 2면 2354호)	/245
---	------

### ▷▷▷삼성

· 예고된 노동자 분신은 없었지만 - 삼성SDI 악명높은 노동탄압, 분신 부를 수도(4.19 1면 2319호)	/168
· <인터뷰>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- “무노조 신화, 초기업 노조로 맞선다”(5.8 2면 2331호)	/195

### 생존권/빈곤

· <기획> 인간답게 살 권리: 하월곡동 이야기 ① 주거권 - 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(1.7 1-2면 2249호)	/5-6
· <해설>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순(1.7 1면 2249호)	/5
· <기획> 인간답게 살 권리: 하월곡동 이야기 ② 건강권 - 가난과 병마를 한 몸에(1.8 1-2면 2250호)	/8-9
· <해설> 건강할 권리,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(1.8 2면 2250호)	/9
· <기획> 인간답게 살 권리: 하월곡동 이야기 ③ 노동의 권리 - 죽도록 일해도 가난만 물려줄 뿐...(1.11 2면 2253호)	/15
· <해설> 저임금에 목숨걸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(1.11 2면 2253호)	/15
· <기획> 인간답게 살 권리: 하월곡동 이야기 ④ 사회보장권 - 최저생계에도 못 미치는 빈곤(1.15 3면 2255호)	/21
· <해설>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시급 (1.15 3면 2255호)	/21
· <기획> 인간답게 살 권리: 하월곡동 이야기 ⑤ 교육권 - 국가로부터, 사회로부터 방치된 아이들(1.22 2면 2260호)	/33
· <기획 : 인간답게 살 권리> 취재후기(1.24 2-3면 2262호)	/37-38
· 억압과 차별에 맞선 투쟁으로 최옥란을 기억하라(3.27 2면 2303호)	/129

### 사회복지/사회보장

· “사전승인절차가 산재보험의 장벽” -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 열려(4.22 1면 2320호)	/170
--	------

### 주거권

· <기획> 인간답게 살 권리: 하월곡동 이야기 ① 주거권 - 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(1.7 1-2면 2249호)	/5-6
· <해설>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순(1.7 1면 2249호)	/5
· 화장실도 부엌도 없는 집, 법으로 없애자! - 주택보급률 100% 시대, 최저주거기준 법제와 토론회 열려	



건강권

- <기획> 인간답게 살 권리: 하월곡동 이야기 ② 건강권 - 가난과 병마를 한 몸에(1.8 1-2면 2250호) /8-9
- <해설> 건강할 권리,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(1.8 2면 2250호) /9

▷글리백

- 백혈병환자 인권위 농성돌입 - “글리백 약값 인하” 등 촉구(1.24 1-2면 2262호) /36-37
- “글리백 약가 결정은 사형선고” - 백혈병 환자들, 이틀째 인권위 점거농성(1.25 1면 2263호) /39
- 백혈병환자들, 노바티스 기습 점거 - “생명을 담보로 배불리지 말라”(2.7 1면 2270호) /56
- <논평> 환자들에 대한 ‘사형선고’ 중단하라(2.8 1면 2271호) /58
- “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” - 백혈병환자들 국가인권위 농성 정리(2.11 1면 2272호) /60
- “특허청, 백혈병 환자 두 번 죽였다” - 특허청의 근거없는 글리백 강제실시 불허결정 비판받아(3.15 2면 2295호) /112

교육권

- <기획> 인간답게 살 권리; 하월곡동 이야기 ⑤ 교육권 - 국가로부터, 사회로부터 방치된 아이들(1.22 2면 2260호) /33
-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- 교육단체, “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(2.6 2면 2269호) /55
- “교육·문화 통상대상 아니다”(2.7 2면 2270호) /57
- “교육개방 안된다”가 세계적 흐름 - WTO 교육개방 반대 국제포럼 열려(3.7 1면 2289호) /98
- 교육개방 반대 합성 일파만파(3.15 2면 2295호) /112
- <논평> ‘유서’까지 ‘대필’하며 이득을 챙기는 자 누구인가(4.12 1면 2314호) /155
- <이주영의 인권이야기> 반전평화수업, 심판대에서 내려라!(4.29 2면 2325호) /181

시민·정치적 권리

생명권

▷대형참사

- <논평> 지하철 참사를 보며 경계해야 할 것들(2.22 1면 2281호) /79

- <논평> 우리 아이들이 겪는 ‘전쟁’에도 ‘NO’라고 말하자(3.29 1면 2305호) /132
- 정부, 또 다른 대형참사 준비하나 - 지하철 안전대책 마련 위한 공청회 열려(4.16 2면 2316호) /160

고문·가혹행위

▷경찰폭력

- 알몸수색 어떻게 바뀌나 - 경찰청, 훈령 개정 움직임(1.3 2면 2247호) /2
- 검찰, 목격자 진술 안 믿겠다? - ‘경찰의 김준배 구타’ 의문사위 결정 뒤집어(1.10 1면 2252호) /12
- 진주총기사건 경찰관 유죄선고(1.10 2면 2252호) /13
- 대우차 경찰폭력, 가해자가 없다니 - 검찰, 경찰책임자 모두 ‘무혐의’ 처분(1.21 1면 2259호) /29
- 경찰폭력 근절 대책위 발족 - 집회 촬영 농민 실명 위기 계기(2.20 1면 2279호) /74
- “김준배 폭행경찰 무혐의 정당” - 광주고법, 김준배 사망관련 의문사위 제정신청 기각(5.10 1면 2332호) /196
- 김준배 씨 폭행치사사건 관련 주요일지(5.10 2면 2332호) /197

▷군폭력/ 군의문사

- 인권위, “이등병 자살 가혹행위 탓” - 국방부에 수사의뢰...군가협, 인권위가 고발했어야(4.25 1면 2323호) /176
-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- 독립적 조사와 심판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수반돼야(6.25 1면 2363호) /262

▷징벌/ 계구 사용

- 인권위, ‘연속 징벌’ 관행 제동 - 징벌문제 개선할 총체적 대안까지 내놓아야(2.21 1면 2280호) /77
- <기자의 눈> 살릴 수도 있었던 목숨들!(2.26 2면 2283호) /84
-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“466일간 가축수갑 채운 것은 인권침해” - 인권위, 현재에 계구 사용 관련 의견서 제출키로(6.11 2면 2353호) /243
- <논평> 가축수갑 사용은 ‘고문’이다(6.14 1면 2356호) /248
- ‘제 맘대로 징벌’, 뿌리뽑히려나 - 인권위, 법무부에 징벌 개선 권고...구체성 미흡 아쉬워(6.24 1면 2362호) /260
-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일회적 징벌 개선책 제시로는 안돼(6.25 2면 2363호) /263
- 참담한 ‘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’ - 인권단체들, 466일간 가축수갑 책임자 고발...고문 중단 촉구(6.27 2면 2365호) /267

프라이버시



▷정보기본권

-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, 북한은 오지 마라?(1.4 2면 2248호) /4
- 1인1적체로 가부장적 종속관계 깬다 - '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' 발족...“호주제나 가족부나 매한가지”(4.15 1면 2315호) /157
- 정보통신부, 정보인권 개념조차 없다 - 정보인권단체들, “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활용 안될 말”(5.22 2면 2340호) /214
- ‘정상’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- 인권사회단체들,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(6.5 1면 2350호) /236
- “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 막자” - 인권사회단체, ‘빅 브라더 주간’ 선포...정보인권 보장 촉구(6.24 1면 2362호) /260

▷▷네이스(NEIS) 저지 투쟁

- 국민 정보 왜 모으지? - 교육정보시스템 중단 요구 확산(2.7 2면 2270호) /57
- <심층 분석>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 - 통제사회로 가는 정보도독질 멈춰라(2.21 2면 2280호) /78
- 전국교사들, NEIS 저지 직접행동 - ‘반인권 통제시스템’ 거부 전국으로 확산(3.4 1면 2286호) /91
- <만화사랑방> 학교괴담 - NEIS(3.6 1면 2288호) /96
- <한상희의 인권이야기> NEIS - 그 국가감시의 폭력(3.11 2면 2291호) /103
- NEIS 저지, 학생·학부모 나선다 - 학부모 2만명 거부 서명 발표...학생 서명도 수집중(3.18 1면 2296호) /113
- 윤 교육부총리, “NEIS 시행 중단 불가” - NEIS 인권침해 가능성 일부 인정하기도(3.26 2면 2302호)/127
- 학생 5명, NEIS 관련 국가 대상 손해소송 제기(3.27 2면 2303호) /129
- 국가인권위, NEIS 청문회 개최...인권적 판단 빨리 내놔야(4.9 2면 2311호) /149
- NEIS 반대운동, 학생들도 직접 나섰다 - 학생단체들, 학생 동의거부서 1,700여장 국가인권위에 전달(4.27 1면 2324호) /179
- <만화사랑방> “나이스”를 경배하라(5.1 1면 2327호) /185
- 교육부, NEIS 강행에서 한발 물러서나 - 전교조·교육부 실무협의, CS제가동 검토(5.7 1면 2330호)/191
-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인권위 뒤편은 ‘대립조정’ 아닌 ‘인권적 판단’...NEIS에 대한 정책 판단, 인권 원칙에 충실해야(5.7 2면 2330호) /192
- 인권위, “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” -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...교육부 수용여부 주목(5.13 1면 2333호) /198
- 교육부 “인권위 권고 수용” 약속 번복 반발 거세(5.15 2면 2335호) /204
- “교육정보위, 교육부 거수기 불과” - 교육·인권사회단체들, 인권위 NEIS 권고 ‘전면’ 수용 촉구(5.20 1면 2338호) /209
- <논평> ‘인권’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(5.24 1면 2342호) /218
- “학생정보, 학교 안으로 돌려보내라” - 인권단체·민교협·민변, 네이스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(5.24 2면 2342호) /219
- 네이스 개인정보항목 잠정 중단 - 교육부·전교조 협상 극적 타결...고3 인권침해문제 남아(5.27 1면 2343호) /220
- 지뢰 몇 개 빼고 네이스 재가동 - 고2이하도 네이스 허용...인권침해 항목 여전히 포함(6.3 1면 2348호)

/231

- <만화사랑방> “인적자원강탈부, 납시오”(6.5 1면 2350호) /236
- <기자의 눈> 유현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‘소신’ 발언 - 논쟁 그만하고 네이스 시행하자고?(6.11 2면 2353호) /243
-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-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...“공개 안돼도 손해 발행”(6.12 1면 2354호) /244
- “내 개인정보, 탐내지 말라” - 졸업생들, 네이스 손해소송 제기(6.12 2면 2354호) /245
- 인권단체들,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 돌입키로(6.17 1면 2357호) /250
- “태풍과 싸우며 정보인권 지킬 터” - 인권활동가 네이스 강행 철회 단식농성...각계 저지행동도(6.19 1면 2359호) /254
- <논평> 정부는 정보인권 보장 요구에 답하라(6.21 1면 2361호) /258
- “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” - 장애인계 활동가 30인 선언발표...인권활동가 지지 단식도(6.25 1면 2363호) /262
- <특별 기고> 김선미 (고3, ‘청소년의 힘’ 회원) - 학생의 눈으로 본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(6.25 2면 2363호) /263
- “교육정보위, 전면 재구성해야” - 52개 단체, 총리실 일방 추진 비판...단식중 인권활동가 쓰러져(6.26 1면 2364호) /264
- <만화사랑방> 개인정보 다 내놔!(6.26 2면 2364호) /265
- “교육정보위, 밀실 구성 그만” - 인권사회단체, 정부에 공청회 제안...공대위 구성키로(6.28 1면 2366호) /268

▷지문날인

- 외국인 지문날인만 인권침해인가? - 지문날인반대연대, ‘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’ 인권위에 진정(6.27 1면 2365호) /266

사상·양심·종교의 자유

- 인권보다 교정교화가 우선 - 법무부,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또 불허(2.6 1면 2269호) /54

▷준법서약/사상전향제도

- <기획>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...‘정권안보’ 그물망 걷어내야(2.14 1면 2275호) /66

▷국가보안법

-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계획 - 국보법·사회보호법·비정규직 집중검토(1.23 2면 2261호) /35



- <기획>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...‘정권안보’ 그물망 걷어내야(2.14 1면 2275호) /66
- “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” - 인권단체들, 법무부에 사상·표현의 자유 의견서 제출(4.12 1면 2314호) /155
- <논평> 권력의 입맛에 맞는 ‘사상’을 진상하라는 것인가(5.10 1면 2332호) /195
- “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” - 대법,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(5.23 1면 2341호) /215
- <이창호의 인권이야기>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(5.27 2면 2343호) /221
- 대법, “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” - <레드헌트>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(6.3 1면 2348호) /231

### ▷▷한총련

- “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” - 민변,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(5.8 1면 2331호) /194
- <논평> 권력의 입맛에 맞는 ‘사상’을 진상하라는 것인가(5.10 1면 2332호) /195
- 대법 “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” - 대법 냉전논리 고수...한총련 문제 해결 역풍 우려(5.14 1면 2334호) /201
- <만화사랑방> “힘도 좋아, 아직도야?”(5.15 1면 2335호) /203
- 대통령 한마디에 ‘난동’된 시위 - 사회각계, 한총련 사법처리 방침 규탄(5.22 1면 2340호) /213
- “한총련 탄압 두고 보지 않겠다” - 한총련 5월 축전 평화적 개최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(5.30 2면 2346호) /227

### ▷▷진보의련

- 의료단체에 덧씌운 ‘이적’ 올가미 - ‘진보의련’ 이적단체 판결...무리한 국보법 적용 비판(6.10 1면 2352호) /240
- “우리도 이적단체다!” - 각계 대표들, 진보의련 이적 판결 강력 규탄(6.14 1면 2356호) /248

### ▷보안관찰법

- <기획>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...‘정권안보’ 그물망 걷어내야(2.14 1면 2275호) /66
- 국가인권위, “보안관찰법 반인권적” -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...보안관찰법 폐지·개정 주장(3.11 1면 2291호) /102
- <만화사랑방> 투명괴물, 보안관찰제도를 잡아라!(3.13 1면 2293호) /107
- 대법, “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” - <레드헌트>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(6.3 1면 2348호) /231

### ▷장기수·양심수

- “포장지가 된 느낌이다” - 부정비리 면죄부 사면은 이제 그만(1.3 2면 2247호) /2
- 박경순 씨, 양심수 사면 촉구 단식(2.28 1면 2285호) /88

- 청와대, “4월 양심수 석방하겠다” -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포함 여부 주목(3.8 1면 2290호) /100
- 사회원로·각계인사 550명, 양심수 전원 석방 촉구 - “양심수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는 민주주의 시금석”(4.9 1면 2311호) /148
- “1천1백여명 양심수는 왜 제외되나” - 인권단체들,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면 포함 촉구(4.11 1면 2313호) /152
- 병역거부 양심수도 사면해야(4.24 1면 2322호) /174
- <논평> 새정부 첫 사면, 인권개혁 변죽만 올린 건가(4.26 1면 2324호) /178
- “양심수 1%밖에 못 나왔다” - 양심수 1164명 여전히 투옥...인권단체들, 선별사면 규탄(4.30 1면 2326호) /183
- 주요 사면·복권자 명단(4.30 2면 2326호) /184

### ▷양심에 따른 병역거부

- <논평> ‘병역거부자’도 양심수의 대열에(1.18 1면 2258호) /27
- 예비군훈련 거부자 선고 연기(2.7 2면 2270호) /57
- 청와대, “4월 양심수 석방하겠다” -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포함 여부 주목(3.8 1면 2290호) /100
-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, 어디까지 왔나 - “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” 국제회의 열려(3.12 1면 2292호) /104
- <발췌 요약> 안드레아스 스펙(반전 인터내셔널):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(3.12 3면 2292호) /106
- “대체복무제, 평화의 첫걸음” -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국제회의, 대체복무제 도입 한 목소리(3.13 2면 2293호) /108
- “유엔기준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해야” - 병역거부 해외활동가들, 한국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(3.14 1면 2294호) /109
- “병역거부도 또 하나의 반전운동” - 생태주의 병역거부자 최준호 씨 실행 선고(3.21 2면 2299호) /120
- “1천1백여명 양심수는 왜 제외되나” - 인권단체들,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면 포함 촉구(4.11 1면 2313호) /152
- 병역거부 양심수도 사면해야(4.24 1면 2322호) /174
- “양심수 1%밖에 못 나왔다” - 양심수 1164명 여전히 투옥...인권단체들, 선별사면 규탄(4.30 1면 2326호) /183
- 불교신자 김도형 씨, 병역거부 선언 - 불교·인권단체들, “언제까지 양심을 철창 안에 가둘 건가”(5.1 1면 2327호) /185
- “팔레스타인 민중 학살 중단하라” - 세계병역거부자의 날, 이스라엘을 향한 외침(5.16 1면 2336호) /205
- 병역거부 다류 지원이 반국가적 활동? - 법사위, 지원금 회수에 기구 축소까지 거론하며 인권위 맹공(6.20 2면 2360호) /257

### 표현의 자유

- “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” - 대법,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(5.23 1면 2341호)



- <이창호의 인권이야기>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(5.27 2면 2343호) /215
- 대법, “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” - <레드헌트>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(6.3 1면 2348호) /221
- 대법, “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” - <레드헌트>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(6.3 1면 2348호) /231

### ▷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

- 인터넷 의사표현에 뒤통수 - 경찰, 사회단체에 IP추적 요청(1.4 2면 2248호) /4
- 정보통신부, “명찰 달고 게시판 글씨라” -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침에 정보인권단체들 강력 반발(4.8 1면 2310호) /146
- 정보통신부, 정보인권 개념조차 없다 - 정보인권단체들, “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활용 안될 말”(5.22 2면 2340호) /214

### 집회·결사의 자유

#### ▷집회 및 시위의 자유

-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‘빨간불’ - 법원 “집회장 침탈·강제연행은 위법” 확인(2.8 2면 2271호) /59
- 대통령 한마디에 ‘난동’된 시위 - 사회각계, 한총련 사법처리 방침 규탄(5.22 1면 2340호) /213
- “한총련 탄압 두고 보지 않겠다” - 한총련 5월 축전 평화적 개최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(5.30 2면 2346호) /227
- 종묘공원까지 집회금지구역으로? -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집시법 개악안 발의(6.5 2면 2350호) /237
- 경찰, “최루탄 사용 의지 변함없다”(6.13 2면 2355호) /247

## 소수자

### 이주노동자

- 이주노동자 대책, 1년 유예로 버틴다? - 연수생 제도 폐지 등 근본대책 시급(1.9 1면 2251호) /10
- <해설> 표류하는 ‘이주노동자 대책’(1.9 1면 2251호) /10
-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·유예 오락가락 - 정부,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...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(3.27 2면 2303호) /129

#### ▷이주노동자 관련 제도

- “고용허가제도 또 다른 족쇄 채운다” - 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...고용허가제 전면 실시제도 문제(4.8 1면 2310호) /146

- 6월 국회, 연수제 꼭 폐지해야 - 국회앞 노상 단식농성...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 촉구(6.13 1면 2355호) /246

### 난민

- 한국 난민정책에 온기류 - 법무부, 4인 난민 인정...후속지원은 전무(2.4 1면 2267호) /49
- “피난처 얻기도 힘들지만, 얻어도 지원은 전무” -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지엄 열려... 한국 난민보호 제도 문제점 짚어(6.26 1면 2364호) /264

### 여성

- <3·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②> 여성과 전쟁 - “전쟁은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의 연장”(3.7 2면 2289호) /99

#### ▷성폭력·성희롱/가정폭력

- ‘여성장애인’과 ‘성폭력’의 고리를 끊자! -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토론회 열려(4.18 1면 2318호) /164

#### ▷성매매

- <심층 분석> 성매매 피해 여성 - 현대판 노예제, 성매매의 사슬을 끊어라(2.26 3면 2283호) /85
- <김정아의 인권이야기> 두레방 인순 언니(3.4 2면 2286호) /92

#### ▷여성노동권

- <3·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①> 여성과 노동 - 여성노동자 얽어매는 빈곤과 차별의 늪(3.6 2면 2288호) /97

#### ▷호주제/개인별 신분등록제

- 1인1적제로 가부장적 종속관계 깬다 - ‘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’ 발족...“호주제나 가족부나 매한가지”(4.15 1면 2315호) /157
- ‘정상’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- 인권사회단체들,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(6.5 1면 2350호) /236
- “호주제 폐지” 국회 건널목 상징 시위(6.21 1면 2361호) /258

### 어린이·청소년

- 잊혀진 아동권, 궁색한 변명 - 유엔아동권위원회, 한국정부 보고서 심사(1.18 1-2면 2258호) /27-28
- 아동권 이행기구 설립되나? - 필요성 공감, 실체는 미지수(1.28 1면 2264호) /41
-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“한국아동의 인권” ①(1.29 2면 2265호) /44
-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“한국아동의 인권” ②(1.30 2면 2266호) /46



· 아동인권 수준 아직도 멀었다 - 유엔아동권리위원회, 한국정부에 권고문 발표(2.4 1면 2267호)	/49
· <요약>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(2.4 3면 2267호)	/51
·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“한국아동의 인권” ③ <끝>(2.5 2면 2268호)	/53
· ‘괘씸죄’ 적용한 학생 보복징계 - 용화여고 허성혜 학생 퇴학처분 철회 요구(2.11 1면 2272호)	/60
· 용화여고 허성혜 학생 퇴학처분 철회키로(2.13 1면 2274호)	/64
· 허성혜 학생 재징계 위기 - 용화여고, “반성 없이는 용서 없다” 고집(2.25 1면 2282호)	/81
· “용화여고 졸업장 꼭 받을래요” - 학교측 부당징계에 맞선 성혜의 당당한 투쟁(3.5 1면 2287호)	/93
· “아동권 이행기구, 제대로 만들라” - 민간단체들, 보건복지부 일방 추진에 제동(3.14 2면 2294호)	/110
· NEIS 저지, 학생·학부모 나선다 - 학부모 2만명 거부 서명 발표...학생 서명도 수집중(3.18 1면 2296호)	/113
· 학생 5명, NEIS 관련 국가 대상 손해소송 제기(3.27 2면 2303호)	/129
· <논평> 우리 아이들이 겪는 ‘전쟁’에도 ‘NO’라고 말하자(3.29 1면 2305호)	/132
· “아동권 이행기구, 독립성·실효성 갖춰야” - 보건복지부,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개최해(4.24 2면 2322호)	/175
· NEIS 반대운동, 학생들도 직접 나섰다 - 학생단체들, 학생 동의거부서 1,700여장 국가인권위에 전달(4.27 1면 2324호)	/179
· “학생정보, 학교 안으로 돌려보내라” - 인권단체·민교협·민변, 네이스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(5.24 2면 2342호)	/219
· 네이스 개인정보항목 잠정 중단 - 교육부·전교조 협상 극적 타결...고3 인권침해문제 남아(5.27 1면 2343호)	/220
· <특별 기고> 김선미 (고3, ‘청소년의 힘’ 회원) - 학생의 눈으로 본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(6.25 2면 2363호)	/263

## 장애인

· <논평> 지하철 참사를 보며 경계해야 할 것들(2.22 1면 2281호)	/79
· “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” - 장애인계 활동가 30인 선언발표...인권활동가 지지 단식도(6.25 1면 2363호)	/262
· “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의 벽 뚫자!” - 장애인계, 공청회 열고 법 제정 움직임 본격화(6.28 2면 2366호)	/269

## ▷이동권

· 오이도역 장애인 참사 2주기...“달라진 게 없다”(1.23 1면 2261호)	/34
· 청와대 가는 휠체어 막은 ‘참여정부’ - 경찰 면담요청 장애인 행렬 방패로 봉쇄(2.27 1면 2284호)	/86
· “언제까지 목숨 걸고 이동해야 하나” - 도시철도공사, 장애인 추락사고 발뺌하기 급급(5.16 2면 2336호)	/206
· <박영희의 인권이야기> 장애인은 마네킹이 아니다(5.20 2면 2338호)	/210
· “이동권 보장, 서울시에 마지막 기회 준다” - 발산역 추락사고 1주기...이동권연대, 4대 요구안 제시(5.21	

1면 2339호)	/211
· “리프트 한번 타 보세요” - 중증장애인, 이동권 보장 요구하며 지하철 철로 점거시위 벌여(5.29 2면 2345호)	/225

## ▷교육권

· 장애인학생 지원 네트워크 뚫다 - 장애인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차별 철폐 위한 연대체 출범(6.11 1면 2353호)	/242
--	------

## ▷장애여성
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‘긴급’구제조치, 차라리 이름을 바꿔라(2.19 1면 2278호)	/72
· <3·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③> 여성과 장애 -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 역압이 낳는 잔혹한 일상(3.8 2면 2290호)	/101
· 억압과 차별에 맞선 투쟁으로 최옥란을 기억하라(3.27 2면 2303호)	/129
· <박영희의 인권이야기> 장애여성 선회의 4월(4.15 2면 2315호)	/158
· ‘여성장애인’과 ‘성폭력’의 고리를 끊자! -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토론회 열려(4.18 1면 2318호)	/164
· <박영희의 인권이야기> 장애인은 마네킹이 아니다(5.20 2면 2338호)	/210
· <박영희의 인권이야기> “엄마가 장애인어니까...”(6.24 2면 2362호)	/261

## 동성애자
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인권위, 누구 눈치 보나(2.6 2면 2269호)	/55
· “동성애, 청소년유해매체 기준 될 수 없다” - 국가인권위, 정보법 시행령 심의기준에서 ‘동성애’ 삭제 권고(4.4 1면 2309호)	/142
· 1인1적제로 가부장적 종속관계 깬다 - ‘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’ 발족...“호주제나 가족부나 매한가지”(4.15 1면 2315호)	/157
· 한 동성애자의 죽음을 통한 절규 - 20살 꽃다운 나이...동성애자 차별없는 세상 먼저 찾아가(4.29 1면 2325호)	/180
· “동성애자 윤모 씨 죽음은 사회적 타살” - 33개 인권사회단체, 동성애자 차별 철폐 촉구 성명(4.30 1면 2326호)	/183
· 동성애자 공격한 에이즈 관련 보도 -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주범으로 ‘동성애자’ 지목(5.15 1면 2335호)	/203
· ‘정상’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- 인권사회단체들,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(6.5 1면 2350호)	/236
· “교회는 신앙의 폭력 멈춰라” - 기독교청년들, 동성애자 윤현석 씨 추모예배 열어(6.6 1면 2351호)	/238



## 국제

### 유엔인권기구

#### ▷유엔 아동권리위원회

- 잊혀진 아동권, 궁색한 변명 - 유엔아동권리위원회, 한국정부 보고서 심사(1.18 1-2면 2258호) /27-28
- 아동권 이행기구 설립되나? - 필요성 공감, 실체는 미지수(1.28 1면 2264호) /41
-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“한국아동의 인권” ①(1.29 2면 2265호) /44
- 아동인권 수준 아직도 멀었다 - 유엔아동권리위원회, 한국정부에 권고문 발표(2.4 1면 2267호) /49
- <요약>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(2.4 3면 2267호) /51
-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“한국아동의 인권” ③ <끝>(2.5 2면 2268호) /53
- “아동권 이행기구, 제대로 만들라” - 민간단체들, 보건복지부 일방 추진에 제동(3.14 2면 2294호) /110
- “아동권 이행기구, 독립성·실효성 갖춰야” - 보건복지부,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개최해(4.24 2면 2322호) /175

#### ▷유엔인권위원회

-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① - 유엔인권위 회의장 가득 메운 침략국 미국의 오만(3.22 2면 2300호)/122
- <자료> 이라크전쟁에 관한 국제 민간단체 공동성명(안) - 유엔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침략 중단과 이라크인 인권보장에 적극 나서라!(3.23 3면 2301호) /125
-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② - 한국정부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미국 눈치보기: 이라크 특별회의 개최 무산(3.29 2면 2305호) /133
- 북한 인권결의안, 유엔인권위 통과 - 해외언론·인권단체들, 결의안 채택 정치적 배경 의심(4.17 1면 2317호) /162
-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⑤ -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(4.18 3-4면 2318호) /166-167
- <논평> ‘인권’을 명분으로 ‘북한 인민의 인권’ 옥죄 건가(4.19 1면 2319호) /168
- <만화사랑방> 전쟁광이 쏘아 올린 공포탄(4.24 1면 2322호) /174
- <연재>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⑥ <끝> - 유엔인권위 난항 속 폐막...정치 흥정 장소로 전락(4.29 3면 2325호) /182

### 국제형사법원(재판소)

- 사회당, 국제형사재판소에 노 대통령 기소 신청 - 실제 기소 여부는 미지수(4.25 2면 2323호) /177

### 지역인권상황

### ▷아시아

- 아체의 핏빛 역사, 또다시 재현되나 - 인도네시아 군부, 반군소탕 전투태세 돌입(5.16 2면 2336호) /206
- “버마군부, 정치 테러 멈춰라” - 국내 인권단체들·NLD한국지부, 아웅산 수지 석방 촉구(6.11 1면 2353호) /242

### ▷▷북한

-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, 북한은 오지 마라?(1.4 2면 2248호) /4
- 북한 인권결의안, 유엔인권위 통과 - 해외언론·인권단체들, 결의안 채택 정치적 배경 의심(4.17 1면 2317호) /162
-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⑤ -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(4.18 3-4면 2318호) /166-167
- <만화사랑방> 전쟁광이 쏘아 올린 공포탄(4.24 1면 2322호) /174
- “교류 확대와 식량난 해결부터”...“적극 개입” - 북한인권문제 접근방식 토론회, 다양한 시각차 재확인(6.13 2면 2355호) /247

### ▷미국

-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‘인권과의 전쟁’(4.10 2면 2312호) /151

### ▷중동

- 평화운동가들 겨는 이스라엘의 총구 - 이스라엘군, ‘국제연대운동’ 평화운동가 잇따라 저격(4.17 2면 2317호) /163
- “팔레스타인 민중 학살 중단하라” - 세계병역거부자의 날, 이스라엘을 향한 외침(5.16 1면 2336호) /205

## 특별주제

### 국가기구와 인권

- <기획>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④ - 인권 관련 국가기구의 개혁...집안 수리부터 철저히!(2.20 3면 2279호) /76
- 강신욱, 법무부장관 후보도 안된다!(2.20 3면 2279호) /76

### ▷국가인권위원회

- “국가인권위 위협선 넘었다” - 광노현 위원 사퇴...인권위 ‘전면쇄신’ 기로에(1.15 1면 2255호) /19
- <긴급진단> 위기의 국가인권위(상) 집행부 따로, 위원들 따로 -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(1.16 1-2면 2256호) /22-23
-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‘인수위 업무보고’, 독립성 훼손 논란...“밥그릇 위해 독립성 내던



졌다" 비난(1.16 3면 2256호)	/24
· <긴급진단>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(하) - 인권위 전면쇄신, 위원장이 결단할 때!(1.17 2면 2257호)	/26
· "국가인권위, 이대론 안된다" - 인권단체들, '인권위 위기 대응방안' 논의(1.23 1면 2261호)	/34
·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계획 - 국보법·사회보호법·비정규직 집중검토(1.23 2면 2261호)	/35
· <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> 국가인권위, 변화 시작되나(1.30 1면 2266호)	/45
· <김정아의 인권이야기> '인권영화' 확대하는 인권위(2.4 2면 2267호)	/50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인권위, 누구 눈치 보나(2.6 2면 2269호)	/55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3대 인권현안과 인권위에 거는 기대(2.13 2면 2274호)	/65
· 인권단체들, 인권위 '법 형식주의' 비판(2.14 2면 2275호)	/67
· 국가인권위, "보안관찰법 반인권적" -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...보안관찰법 폐지·개정 주장(3.11 1면 2291호)	/102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가보고 싶은 인권자료실 되려면(3.12 2면 2292호)	/105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인권침해 사건 조사, 나무보다는 숲을 보라(3.19 2면 2297호)	/116
· 국가인권위, 전쟁반대 입장 밝혀 - 인권단체, 늦었지만 환영...정치권·일부언론, 인권위 흠집내기(3.27 1면 2303호)	/128
· "인권위, 할 말 했다...여야, 무지한 비판" - 인권단체들, 인권위 "전쟁반대" 입장 표명 적극 옹호(3.28 1면 2304호)	/130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인권위 노조 설립 움직임...인권위, 분명한 입장 밝혀야(4.2 2면 2307호)	/138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인권위, 정보공개 소송단체 "유명무실" 모독(4.9 2면 2311호)	/149
· 국가인권위, NEIS 청문회 개최...인권적 판단 빨리 내놔야(4.9 2면 2311호)	/149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인권위 국내협력,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(4.16 3면 2316호)	/161
· 국가인권위 쇄신 열린회의의 국가인권위 항의방문 - 새사회연대 '모독' 사과 받아내(4.17 1면 2317호)	/162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,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(4.23 2면 2321호)	/173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인권위 전략 논의, 인권단체들이 나선다(4.30 2면 2326호)	/184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인권위 뭇은 '대립조정' 아닌 '인권적 판단'...NEIS에 대한 정책 판단, 인권 원칙에 충실해야(5.7 2면 2330호)	/192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"말문은 뗐지만 깊은 대화 부족했다"...인권위, 4개 지역 인권단체들과 간담회 가져(5.28 2면 2344호)	/223
· 병역거부 서류 지원이 반국가적 활동? - 법사위, 지원금 회수에 기구 축소까지 거론하며 인권위 맹공(6.20 2면 2360호)	/257

### ▷▷권고 및 구제 결정 관련

·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원점으로 - 울산지검,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(1.3 1면 2247호)	/1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울산구치소 사망사건, 인권위와 검찰의 진실게임(1.9 2면 2251호)	/11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인권위 직권조사...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(1.23 2면 2261호)	/35

· <기자의 눈> 인권위의 이상한 권고(2.13 2면 2274호)	/65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'긴급'구제조치, 차라리 이름을 바꿔라(2.19 1면 2278호)	/72
· 인권위, '연속 징벌' 관행 제동 - 징벌문제 개선할 총체적 대안까지 내놓아야(2.21 1면 2280호)	/77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<기자의 눈> 살릴 수도 있었던 목숨들!(2.26 2면 2283호)	/84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<주목할 만한 결정> 불법 긴급체포가 고문 부른다(2.26 2면 2283호)	/84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8개월만에 나온 "기간제 교사 차별 말라" 권고(3.26 1면 2302호)	/126
· "동성애, 청소년유해매체 기준 될 수 없다" - 국가인권위, 청보법 시행령 심의기준에서 '동성애' 삭제 권고(4.4 1면 2309호)	/142
· 인권위, "이등병 자살 가혹행위 탓" - 국방부에 수사의뢰...군가협, 인권위가 고발했어야(4.25 1면 2323호)	/176
· 인권위, "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" -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...교육부 수용여부 주목(5.13 1면 2333호)	/198
· 교육부 "인권위 권고 수용" 약속 번복 반발 거세(5.15 2면 2335호)	/204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인권위 권고, 후속 대응 절실...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(5.21 2면 2339호)	/212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인권위, 검찰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(6.4 2-3면 2349호)	/234-235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"466일간 가족수감 채운 것은 인권침해" - 인권위, 현재에 계구 사용 관련 의견서 제출키로(6.11 2면 2353호)	/243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일회적 징벌 개선책 제시로는 안돼(6.25 2면 2363호)	/263

### ▷▷인권위원 선임 및 행보

· 입장도 없고 성의도 없다? - 인권단체, 류국현 인권위원 사퇴촉구(1.8 1면 2250호)	/8
· <만화사랑방> 류국현 - 반인권 전력 가진 인권위원 선임(1.10 1면 2252호)	/12
· <속보> 류국현 인권위원 사의표명 - 인권위원 인선절차 공론화 계기 될 듯(1.11 1면 2253호)	/14
· <긴급논평> 인권위원 공개검증 절차 마련하라(1.11 1면 2253호)	/14
· "류국현 사임, 밀실인선 결과" - 인권단체들, 인권위원 공개검정 절차 요구(1.14 3면 2254호)	/18
· <논평> 인권위원 밀실인사, 또다시 되풀이할 건가(3.8 1면 2290호)	/100
· <기자의 눈> '전쟁반대' 의견서 파문과 소신없는 인권위원의 행보(4.2 2면 2307호)	/138
· 이홍록 변호사 새 인권위원 임명 - 경력과 소신 갖춘 인물 다행...밀실인선 되풀이하는 문제(5.2 1면 2328호)	/187
· <기자의 눈> 인권위 밀실인선, 관행으로 굳어지나?(5.7 2면 2330호)	/192
· <기자의 눈> 유현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'소신' 발언 - 논쟁 그만하고 네이스 시행하자고?(6.11 2면 2353호)	/243

### ▷경찰



· “알몸수색 어떻게 바뀌나” - 경찰청, 훈령 개정 움직임(1.3 2면 2247호)	/2
· 경찰, 반미집회 엄단? - 촛불시위 강경 대응 비난여론(1.4 1면 2248호)	/3
· <논평> 촛불의 바다를 가르지 말라(1.4 1면 2248호)	/3
· <김정아의 인권이야기> 아직도 ‘검문 중’(1.7 3면 2249호)	/7
· 검찰, 목격자 진술 안 믿겠다? - ‘경찰의 김준배 구타’ 의문사위 결정 뒤집어(1.10 1면 2252호)	/12
· 진주총기사건 경찰관 유죄선고(1.10 2면 2252호)	/13
· 대우차 경찰폭력, 가해자가 없더니 - 검찰, 경찰책임자 모두 ‘무혐의’ 처분(1.21 1면 2259호)	/29
· 경찰, 촛불시위 탄압강도 높이나? - 범대위 관계자 소환장 발부예다 폭력 연행까지(3.13 2면 2293호)	/108

### ▷검찰

· 검찰, 목격자 진술 안 믿겠다? - ‘경찰의 김준배 구타’ 의문사위 결정 뒤집어(1.10 1면 2252호)	/12
· 대우차 경찰폭력, 가해자가 없더니 - 검찰, 경찰책임자 모두 ‘무혐의’ 처분(1.21 1면 2259호)	/29
· 의문사위, ‘김준배사건’ 법원에 제정신청 - ‘검찰, 합리적 이유없이 목격자 진술 배척’(1.21 1면 2259호)	/29
·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- 검찰개혁 토론회, “제정신청 확대, 상설특검제 시행”(1.29 1면 2265호)	/43
· <한상희의 인권이야기>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(2.11 2면 2272호)	/61
· <심층 분석> 검찰 개혁 - 무소불위의 권력부터 해체해야(2.20 3면 2279호)	/76
· “검찰개혁시대 역행하는 검찰총장 후보” - 인권운동사랑방, 반인권적 의식·전력 지닌 송광수 후보 반대 성명(4.1 1면 2306호)	/135
· <만화사랑방> 검찰총장 후보, 전투준비완료?(4.3 2면 2308호)	/141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,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(4.23 2면 2321호)	/173
· “김준배 폭행경찰 무혐의 정당” - 광주고법, 김준배 사망관련 의문사위 제정신청 기각(5.10 1면 2332호)	/195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인권위, 검찰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(6.4 2-3면 2349호)	/234-235

### ▷법원

· <한상희의 인권이야기> 법원은 진정 인권탄압의 선봉에 설 것인가(1.15 2면 2255호)	/20
·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‘빨간불’ - 법원 “집회장 침탈·강제연행은 위법” 확인(2.8 2면 2271호)	/59
· “교도소내 산재, 국가가 책임져야” - 서울지법, 턱없이 낮은 ‘위로금’ 지급판행도 제동(2.15 1면 2276호)	/68
· 일방적 정리해고에 날개 달아준 대법원 - “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”(2.20 1면 2279호)	/74
· <판결문 요약> ‘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’ 대법원 판결(2.20 2면 2279호)	/75
· <만화사랑방> ‘법’은 ‘자본’의 ‘신도’일 뿐?(2.21 1면 2280호)	/77
· “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고용” - 서울고법 판결…파견법 철폐까지 나아가야(3.15 1면 2295호)	

· “김준배 폭행경찰 무혐의 정당” - 광주고법, 김준배 사망관련 의문사위 제정신청 기각(5.10 1면 2332호)	/111
· 대법 “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” - 대법 냉전논리 고수…한총련 문제 해결 역풍 우려(5.14 1면 2334호)	/195
· 현재, ‘불법파업 제조기’ 옹호 -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“직권중재 합헌” 결정(5.17 1면 2337호)	/201
· “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” - 대법,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(5.23 1면 2341호)	/207
	/215

### 시설수용자와 인권

· <심층 분석> 사회복지시설 - 사회복지시설, 닫힌 문을 열어라(2.22 2면 2281호)	/80
---	-----

### ▷에바다 사건(청각장애아 시설)

· <속보> “에바다 정상화 약속 잊었는가”(2.26 3면 2283호)	/85
· 어? 3월인데 방학한 학교가 있네 - 경기도교육청, 에바다학교 파행 운영 방기(3.5 1면 2287호)	/93
· 다시 시작된 수업, 웃음꽃 핀 에바다학교 - 복지관에 임시 등지 마련…구 재단측, 농아원생 수업 참가 막아(4.2 1면 2307호)	/137
· 구 재단측 졸업생들, 에바다 학생 폭행 - 에바다학교 정상화 방해 목적 구재단측 사주로 의심돼(4.15 1면 2315호)	/157
· 에바다 문 드디어 열렸다 - 민주 이사진, 불법점거된 에바다 1년 반만에 되찾아(5.29 1면 2345호)	/224
· 에바다 정상화 막판 진통 - 최성창 전 이사장 퇴거 불응…오늘 대규모 집회 예정(5.31 1면 2347호)	/228
· <이주영의 인권이야기> 에바다의 숙제(6.3 2면 2348호)	/232
· 최성창 전 에바다이사장 전격 연행 - 경기도경 압수수색 단행…에바다 정상화에 일대 전기 마련(6.4 1면 2349호)	/233
· 에바다 새벽 폭력난입자들, 전원 불구속 처리 - 평택 검·경의 구재단 편들기, 에바다 정상화 가로막아(6.10 1면 2352호)	/240
· “평택 검찰·경찰 특별감찰 실시하라”(6.13 2면 2355호)	/247
· 에바다 농아원생 5명, 사흘째 행방 묘연 - 농아원 측 경찰에 납치 신고…구 비리재단 측 소행으로 추정돼(6.17 1면 2357호)	/250
· 에바다 구 비리재단 직원 양봉애 씨 긴급체포(6.27 2면 2365호)	/267

### 감옥·유치장 수용자와 인권

·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원점으로 - 울산지검,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(1.3 1면 2247호)	/1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울산구치소 사망사건, 인권위와 검찰의 진실게임(1.9 2면 2251호)	



	/11
· <기고> 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에 부쳐(2.8 2면 2271호)	/59
· 주인이 바뀐다고 위험이 사라지나 - 인권단체들, 민영교도소 추진 중단 요구(2.12 1면 2273호)	/62
· “교도소내 산재, 국가가 책임져야” - 서울지법, 턱없이 낮은 ‘위로금’ 지급관행도 제동(2.15 1면 2276호)	/68
· 인권위, ‘연속 징벌’ 관행 제동 - 징벌문제 개선할 총체적 대안까지 내놓아야(2.21 1면 2280호)	/77
· <기자의 눈> 살릴 수도 있었던 목숨들!(2.26 2면 2283호)	/84
· 안동교도소 재소자, 징벌 받던 중 사망 - 징벌 따른 울분으로 자살한 듯...징벌제도 대대적 정비 시급(5.14 2면 2334호)	/202
· <지상중계> 사상 초유의 민·관 합동 행정개혁 토론회(5.17 2면 2337호)	/208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“466일간 가족수갑 채운 것은 인권침해” - 인권위, 현재에 계구 사용 관련 의견서 제출키로(6.11 2면 2353호)	/243
· <논평> 가족수갑 사용은 ‘고문’이다(6.14 1면 2356호)	/248
· ‘제 맘대로 징벌’, 뿌리뽑히려 - 인권위, 법무부에 징벌 개선 권고...구체성 미흡 아쉬워(6.24 1면 2362호)	/260
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- 일회적 징벌 개선책 제시로는 안돼(6.25 2면 2363호)	/263
· 참담한 ‘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’ - 인권단체들, 466일간 가족수갑 책임자 고발...고문 중단 촉구(6.27 2면 2365호)	/267

#### ▷사회보호법/ 보호감호제

·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계획 - 국보법·사회보호법·비정규직 집중검토(1.23 2면 2261호)	/35
· <심층분석>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(2.14 2면 2275호)	/67
· 헌법소원, 할 테면 알아서 해봐! - 청송감호소, 헌법소원 위임장 배포 불허(2.26 1면 2283호)	/83
· “사회보호법, 한판 붙어보자” -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동위 결성...헌법소원도 제기돼(3.12 1면 2292호)	/104
· <기획 연재> 소리없는 ‘사형선고’, 사회보호법 ① -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(3.28 2면 2304호)	/131
· <기획 연재> 소리없는 ‘사형선고’, 사회보호법 ② - 보호감호, 빈곤계층을 향한 닷(4.4 2면 2309호)	/143
· <기획 연재> 소리없는 ‘사형선고’, 사회보호법 ③ - 국가가 만들어 내는 ‘되돌이표’ 인생들(4.11 2면 2313호)	/153
· <기획 연재> 소리없는 ‘사형선고’, 사회보호법 ④ - 감옥보다 더 견고한 ‘감옥’, 보호감호소(4.18 2면 2318호)	/165
· <기획 연재> 소리없는 ‘사형선고’, 사회보호법 ⑤ - ‘고무줄’ 보호감호 집행, 피감호자 황폐화시킨다(4.25 2면 2323호)	/177
· <기획 연재> 소리없는 ‘사형선고’, 사회보호법 ⑥ <끝> - 보호감호제도에 마침표를 찍자!(5.2 2면 2328호)	/187
· 강 법무, “보호감호제, 획기적 안 준비할 것” - 사회보호법 폐지 공동위...강금실 법무부 장관 면담(5.14 1면 2334호)	/201

· 청송 피감호자, “사회보호법 폐지” 단식농성 - 참가자 6백여명으로 불어나...법무부 공식 대책 요구(5.27 1면 2343호)	/220
· “사회보호법, 야만의 벽 허물어야” - 피감호자 단식 5일째...인권단체들,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(5.28 1면 2344호)	/222
· 인권침해 ‘덜’ 하겠다? - 법무부 보호감호 개선안 발표...“단식 무마용 미봉책” 반발(5.30 1면 2346호)	/226
· <논평> 청송 집단단식, 정녕 외면하려는가(5.31 1면 2347호)	/228
· “사회보호법은 사회정착의 걸림돌” - 청송 출소자들, 사회보호법 폐해 고발...피감호자 단식 풀어(6.4 1면 2349호)	/233
· 청송 피감호자 616명,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- 공대위,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(6.18 2면 2358호)	/253

#### 신자유주의와 인권

##### ▷교육개방

·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- 교육단체, “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(2.6 2면 2269호)	/55
· “교육·문화 통상대상 아니다”(2.7 2면 2270호)	/57
· “교육개방 안된다”가 세계적 흐름 - WTO 교육개방 반대 국제포럼 열려(3.7 1면 2289호)	/98

##### ▷사영화/ 해외매각

· 발전산업, 흑자 불구 매각방침 강행 - 시민사회단체들, 매각 중단·재논의 촉구(1.29 1면 2265호)	/43
· 주인이 바뀐다고 위험이 사라지나 - 인권단체들, 민영교도소 추진 중단 요구(2.12 1면 2273호)	/62
· <진단> 철도관련법안, 무엇이 문제인가 - 상업화된 경쟁체제로의 철도 전환 노린다(6.28 2면 2366호)	/269

##### ▷경제자유구역(경제특구)

· “경제자유구역, 인권 재앙 부른다” -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위한 범국민대책위 결성돼(4.24 1면 2322호)	/174
· “경제자유구역법, 인권침해 종합세트” -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(5.30 2면 2346호)/227	/227
· 16일 ‘경제자유구역 폐기’ 노숙농성 돌입 - 시행령 17일 통과 예정...노동인권단체들, 곳곳 저지 투쟁(6.14 2면 2356호)	/249
·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임박 -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...다음주께 통과 전망(6.17 1면 2357호)	/250
·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(6.25 1면 2363호)	/262



## 미국과 인권

- “미, 한반도 전쟁 준비한다” - 한반도 전력증강 규탄 기자회견 열려(2.7 2면 2270호) /57

## ▷주한미군과 인권

### ▷▷소파협정

- <만화사랑방> 한미SOFA개정의 그날까지! 자주와 평화의 그날까지! (1.3 1면 2247호) /1
- 한미당국 소파개정, 말장난 그만! - “한미소파 전면 개정은 국민적 요구”(1.10 2면 2252호) /13

### ▷▷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

- 경찰, 반미집회 엄단? - 촛불시위 강경 대응 비난여론(1.4 1면 2248호) /3
- <논평> 촛불의 바다를 가르지 말라(1.4 1면 2248호) /3
- 여중생 사망사건, 숨길게 뭐인가 - 민변, 수사기록공개 청구소송 예정(1.4 2면 2248호) /4
- 경찰, 촛불시위 탄압강도 높이나? - 범대위 관계자 소환장 발부에다 폭력 연행까지(3.13 2면 2293호) /108
- <속보> 여중생 범대위 관계자 아직도 안 풀려나(3.14 2면 2294호) /110
- <만화사랑방> 지금은 어린 ‘촛불’이지만...(6.12 2면 2354호) /245

## 과거청산/불처벌

- <기획>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③ - 과거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...‘진실’은 가장 훌륭한 인권 교과서(2.19 2면 2278호) /73
- 4·3항쟁 온전한 복원, 남은 과제 많다 - 우익 반발 딛고...진상보고서 한계 딛고 나아가야(4.4 1면 2309호) /142
- <요약> 제주 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채택 - 제주 4·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‘조사 결론’(4.4 3-4면 2309호) /144-145
- 일본군 성노예·강제징용, ILO에서 해결하자! -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으로 총회 상정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(4.19 2면 2319호) /169
- 사북항쟁, 23년 ‘폭동’ 명에 벗어나야 - 폭도로 매도된 사북 광부들, 23주년 기념식 열어(4.23 1면 2321호) /172

## ▷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

- “인권위, 민간인학살 직권조사 하라”(1.28 1면 2264호) /41
- <이영일의 인권이야기> 정치의 비민주화와 학살권력의 재생산(1.28 2면 2264호) /42
- <이영일의 인권이야기> 과거청산 없이 민주주의의 완성도 없다(2.25 2면 2282호) /82
- 민간인 학살 유족들, 무기한 농성 돌입 - 국가인권위 접거...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요구(2.28 1면 2285호) /88

- 국회 앞, 피학살 영혼 해원국 - 학살규명 통합특별법 촉구 농성 64일째 맞아(5.3 1면 2329호) /189
- 실제 드러난 김천형무소 집단학살 - 매장 동원 주민 증언...현장에서 유골, 탄피 등 발굴(5.10 2면 2332호) /197
- “잠자고 있는 학살규명 특별법안을 깨우자” - 전국 유족들 상경투쟁...6월 임시국회 특별법 제정 촉구(5.24 2면 2342호) /219
- <만화사랑방> 입맞춰 깨워라(5.29 1면 2345호) /224
- “국회는 유족들 가슴에 소금 뿌리지 말라” - 민간인학살 유족 증언대회...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(6.18 1면 2358호) /252
- 민간인학살 특별법 처리 무산 - 투쟁본부, “이병석 위원, 유족 두 번 죽였다”(6.21 1면 2361호) /258

## ▷삼청교육대

- 22년째 외면된 ‘삼청교육’의 진실 - 두 번째 백서 발간...“차가운 시선” 난관(1.22 1면 2260호) /32
- 삼청교육 피해자, ‘할복’ 절규 - 22년을 외면해온 세상을 향하여...(1.24 1면 2262호) /36
- <만화사랑방> ‘삼청교육’, 뜨거운 진실과 차가운 현실(1.24 3면 2262호) /38
- <논평> 삼청교육 진실찾기, 국가가 나서라(1.25 1면 2263호) /39
- <심층 분석> 삼청교육 - 사회적 생명마저 끊어놓은 국가범죄!(2.19 2면 2278호) /73

## ▷의문사

- 검찰, 목격자 진술 안 믿겠다? - ‘경찰의 김준배 구타’ 의문사위 결정 뒤집어(1.10 1면 2252호) /12
- 의문사위, ‘김준배사건’ 법원에 재정신청 - ‘검찰, 합리적 이유없이 목격자 진술 배척’(1.21 1면 2259호) /29
- “김준배 폭행경찰 무혐의 정당” - 광주고법, 김준배 사망관련 의문사위 재정신청 기각(5.10 1면 2332호) /195
- 김준배 씨 폭행치사사건 관련 주요일지(5.10 2면 2332호) /196

## ▷▷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
- “의문사특별법 개정 과제 산적” - 의문사위원회 2기 활동 앞두고 법 개정 공청회 열려(5.7 1면 2330호) /191
- <논평>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(5.17 1면 2337호) /207

## 인권교육

- <현장스케치> 2003 청년인권워크샵-“인권마을에서는 교육·의료 등이 모두 공짜”(1.15 2면 2255호) /20
- <기획>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② -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...권리를 위한 권리, 인권교육!(2.15 2면 2276호) /69



## 평화

- “미, 한반도 전쟁 준비한다” - 한반도 전력증강 규탄 기자회견 열려(2.7 2면 2270호) /57
- <심층 분석> 해외파병 - 평화는 군사력을 통해 오지 않는다(2.27 2면 2284호) /87
- <3·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②> 여성과 전쟁 - “전쟁은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의 연장”(3.7 2면 2289호) /99
- “병역거부도 또 하나의 반전운동” - 생태주의 병역거부자 최준호 씨 실행 선고(3.21 2면 2299호) /120
- <김철준의 인권이야기> 이제 ‘우리’의 반전운동을 준비하자(4.8 2면 2310호) /147
- 북한 인권결의안, 유엔인권위 통과 - 해외언론·인권단체들, 결의안 채택 정치적 배경 의심(4.17 1면 2317호) /162
- 평화운동가들 겨눈 이스라엘의 총구 - 이스라엘군, ‘국제연대운동’ 평화운동가 잇따라 저격(4.17 2면 2317호) /163
-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⑤ -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(4.18 3-4면 2318호) /166-167
- <논평> ‘인권’을 명분으로 ‘북한 인민의 인권’ 옥철 건가(4.19 1면 2319호) /168
- <만화사랑방> 전쟁광이 쏘아 올린 공포탄(4.24 1면 2322호) /174

## ▷이라크 전쟁과 한국군 파병

- “전쟁, 은몸으로 막겠다” - 한국인 3명, 평화 위해 이라크로 출국(2.8 1면 2271호) /58
- “파병=식민지 점령 지원” - 이라크 공격·파병 반대 요구 고조(2.12 1면 2273호) /62
- <만화사랑방> 평화와 명예를 위한 응징이라고?(2.14 1면 2275호) /66
- <논평> 예고된 집단학살, 이라크전쟁을 막아라(2.15 1면 2276호) /68
- ‘그들’이 이라크로 떠난 이유 - 3인3색, 하나의 외침 속에 다양한 반전 목소리(2.18 1면 2277호) /70
- “한국정부 미국지원 명분없다” - 인권사회단체, 미 이라크 지원요청 거부 요구(3.12 2면 2292호) /105
- <논평> 진정 전쟁의 공모자가 되려 하는가?(3.15 1면 2295호) /111
- “미 전쟁범죄의 공범 될 텐가” - 한국군 이라크전 파병방침 철회 요구 확산(3.19 1면 2297호) /115
- “이라크 아이들아, 걱정마!” - 아이들이 외치는 ‘평화’의 함성(3.19 1면 2297호) /115
- “전쟁은 대량학살을 예고한다” - 이라크인 절반은 어린이...한국 학살 가담 중단 요구 거세(3.20 1면 2298호) /117
- <만화사랑방> ‘21세기 히틀러’의 미친 노래(3.20 1면 2298호) /117
- 미국의 폭탄은 바로 이 아이를 겨냥하고 있다! - “우리가 막아야 합니다”...광화문 가득 메운 전쟁 중단 목소리(3.21 1면 2299호) /119
- <논평> 유엔체제의 종말과 새로운 정글 질서의 도래(3.22 1면 2300호) /121
- 59차 유엔인권위 소식 ① 유엔인권위 회의장 가득 메운 침략국 미국의 오만(3.22 2면 2300호) /122
- “우리를 전범국 국민 만들지 말라” - 파병철회 촉구 메아리...세계가 한국결정 주목한다(3.23 1면 2301호) /123
- <이창호의 인권이야기> 이라크 전쟁과 인권운동의 과제(3.23 2면 2301호) /124
- <자료> 이라크전쟁에 관한 국제 민간단체 공동성명(안) - 유엔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침략 중단과 이라크인 인권보장에 적극 나서라!(3.23 3면 2301호) /125
- 반전물결, 국회 파병결정 연기시켜 - 파병동의안 재상정 가능성 여전...완전폐기까지 힘 모아(3.26 1면 2302호) /126

- 국가인권위, 전쟁반대 입장 밝혀 - 인권단체, 늦었지만 환영...정치권·일부언론, 인권위 흠집내기(3.27 1면 2303호) /128
- <만화사랑방> 우리는 반전 삼남매(3.27 1면 2303호) /128
- “인권위, 할 말 했다...여야, 무지한 비판” - 인권단체들, 인권위 “전쟁반대” 입장 표명 적극 옹호(3.28 1면 2304호) /130
- 선준영 유엔대사, 미 톨마니 자처하나 - 인권사회단체들, ‘침략전쟁 불가피’ 망언 강력 규탄(3.29 1면 2305호) /132
- 파병동의안 처리, 31일로 연기(3.29 1면 2305호) /132
-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② - 한국정부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미국 눈치보기: 이라크 특별회의 개최 무산(3.29 2면 2305호) /133
- <이주영의 인권이야기> ‘병’ 보내고 약 보내자는 것인가? - 의료병 파병이 인도적 차원이라는 해괴한 주장(4.1 2면 2306호) /136
- <성명> 이라크 아이들의 피를 선택한 더러운 국회를 규탄한다(4.3 1면 2308호) /140
- “이라크 아이들의 피로 내 배 불리겠다” - 침략국 지원병 파병안 국회 통과(4.3 2면 2308호) /141
- 반전평화 불꽃, 다시 지핀다 - 귀국한 반전평화팀 9인, 명동성당 노상농성 돌입(4.9 1면 2311호) /148
- <만화사랑방> 치료중이라니?(4.10 1면 2312호) /150
- 이라크 파병 선발대 마침내 출국 - 파병반대 항의시위 곳곳에서 벌어져(4.18 1면 2318호) /164
- 사회당, 국제형사재판소에 노 대통령 기소 신청 - 실제 기소 여부는 미지수(4.25 2면 2323호) /177
- 미 전쟁범죄 증언한다 - 이라크 민간인 피해 고발 사이트 개설(5.15 2면 2335호) /204

## 인권일반

- 인권단체들, 대통령직 인수위에 새정부 인권과제 전달(2.13 1면 2274호) /64

## 인권활동가

- <인터뷰>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경우 변호사 - “현장으로 찾아가는 인권운동 전개할 터”(2.14 2면 2275호) /67
- <논평> 이라크 민중에 대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(5.3 1면 2329호) /189

## 기획

### ▷인간답게 살 권리 : 하월곡동 이야기

- ① 주거권 - 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(1.7 1-2면 2249호) /5-6
- <해설>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율(1.7 1면 2249호) /5
- ② 건강권 - 가난과 병마를 한 몸에(1.8 1-2면 2250호) /8-9



· <해설> 건강할 권리,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(1.8 2면 2250호)	/9
· ③ 노동의 권리 : 죽도록 일해도 가난만 물려줄 뿐...(1.11 2면 2253호)	/15
· <해설> 저임금에 목숨걸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(1.11 2면 2253호)	/15
· ④ 사회보장권 : 최저생계에도 못 미치는 빈곤(1.15 3면 2255호)	/21
· <해설>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시급 (1.15 3면 2255호)	/21
· ⑤ 교육권 : 국가로부터, 사회로부터 방치된 아이들<끝>(1.22 2면 2260호)	/33
· <기획 : 인간답게 살 권리> 취재후기(1.24 2-3면 2262호)	/37-38

### ▷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“한국 아동의 인권”

·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“한국아동의 인권” ①(1.29 2면 2265호)	/44
·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“한국아동의 인권” ②(1.30 2면 2266호)	/46
·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“한국아동의 인권” ③ <끝>(2.5 2면 2268호)	/53

### ▷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

·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...‘정권안보’ 그물망 걷어내야(2.14 1면 2275호)	/66
· <심층분석>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(2.14 2면 2275호)	/67
· ②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...권리를 위한 권리, 인권교육!(2.15 2면 2276호)	/69
· ③ 과거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...‘진실’은 가장 훌륭한 인권 교과서(2.19 2면 2278호)	/73
· <심층 분석> 삼청교육 - 사회적 생명마저 끊어놓은 국가범죄!(2.19 2면 2278호)	/73
· ④ 인권 관련 국가기구의 개혁...집안 수리부터 철저히!(2.20 3면 2279호)	/76
· <심층 분석> 검찰 개혁 - 무소불위의 권력부터 해체해야(2.20 3면 2279호)	/76
· ⑤ 시민·정치적 권리의 보장...국제인권기준으로 권력남용에 고삐를!(2.21 2면 2280호)	/78
· <심층 분석>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 - 통제사회로 가는 정보도둑질 멈춰라(2.21 2면 2280호)	/78
· ⑥ 경제·사회·문화적 권리의 보장...인간다운 삶의 버팀목, 사회권의 보장(2.22 2면 2281호)	/80
· <심층 분석> 사회복지시설 - 사회복지시설, 닫힌 문을 열어라(2.22 2면 2281호)	/80
· ⑦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...‘소수자’라는 말조차 사라지도록 해야!(2.26 3면 2283호)	/85
· <심층 분석> 성매매 피해 여성 - 현대판 노예제, 성매매의 사슬을 끊어라(2.26 3면 2283호)	/85
· ⑧ 인권옹호를 위한 국제적 책임...인권에는 국경이 없다!(2.27 2면 2284호)	/87
· <심층 분석> 해외파병 - 평화는 군사력을 통해 오지 않는다(2.27 2면 2284호)	/87

### ▷ 3·8 세계 여성의 날 특집

· ① 여성과 노동 - 여성노동자 얹어매는 빈곤과 차별의 늪(3.6 2면 2288호)	/97
· ② 여성과 전쟁 - “전쟁은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의 연장”(3.7 2면 2289호)	/99
· ③ 여성과 장애 -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 억압이 낳는 잔혹한 일상(3.8 2면 2290호)	/101

### ▷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

· ① 유엔인권위 회의장 가득 메운 침략국 미국의 오만(3.22 2면 2300호)	/122
· ② 한국정부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미국 눈치보기: 이라크 특별회의 개최 무산(3.29 2면 2305호)	/133

· ③ 노무현 ‘참여정부’의 ‘인권’없는 ‘인권외교’(4.11 3면 2313호)	/154
·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(4.12 2면 2314호)	/156
· 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(4.18 3-4면 2318호)	/166-167
· <기고>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(상) -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(5.7 3면 2330호)	/193
· <기고>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(하) - ‘참여정부’ 인권외교,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(5.13 3면 2333호)	/200

### ▷ 소리없는 ‘사형선고’, 사회보호법

·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(3.28 2면 2304호)	/131
· ② 보호감호, 빈곤계층을 향한 닢(4.4 2면 2309호)	/143
· ③ 국가가 만들어 내는 ‘되돌이표’ 인생들(4.11 2면 2313호)	/153
· ④ 감옥보다 더 견고한 ‘감옥’, 보호감호소(4.18 2면 2318호)	/165
· ⑤ ‘고무줄’ 보호감호 집행, 피감호자 황폐화시킨다(4.25 2면 2323호)	/177
· ⑥ 유엔인권위 난항 속 폐막...정치 흥정 장소로 전락(4.29 3면 2325호)	/182

### ▷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

· <상> 사회권 옹호를 위한 지구적 연대의 출발(6.19 2면 2359호)	/255
· 민중의 힘, 사회권 운동의 기초(6.19 2면 2359호)	/255
· <중> 유엔내 사회권, 어디까지 왔나...사회권 실현을 위한 유엔 특별보고관 활동(6.21 2면 2361호)	/259
· <하> ‘위로부터의 세계화’와 인권운동(6.26 2면 2364호)	/265

### ▷ <연재>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

· 울산구치소 사망사건, 인권위와 검찰의 진실게임(1.9 2면 2251호)	/11
· ‘인수위 업무보고’, 독립성 훼손 논란...“밥그릇 위해 독립성 내던졌다” 비난(1.16 3면 2256호)	/24
· 인권위 직권조사...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(1.23 2면 2261호)	/35
· 국가인권위, 변화 시작되나(1.30 1면 2266호)	/45
· 인권위, 누구 눈치 보나(2.6 2면 2269호)	/55
· 3대 인권현안과 인권위에 거는 기대(2.13 2면 2274호)	/65
· ‘긴급’구제조치, 차라리 이름을 바꿔라(2.19 1면 2278호)	/72
· <기자의 눈> 살릴 수도 있었던 목숨들!(2.26 2면 2283호)	/84
· <주목할 만한 결정> 불법 긴급체포가 고문 부른다(2.26 2면 2283호)	/84
· 가보고 싶은 인권자료실 되려면(3.12 2면 2292호)	/105
· 인권침해 사건 조사, 나무보다는 숲을 보라(3.19 2면 2297호)	/116
· 8개월만에 나온 “기간제 교사 차별 말라” 권고(3.26 1면 2302호)	/126
· 인권위 노조 설립 움직임...인권위, 분명한 입장 밝혀야(4.2 2면 2307호)	/138
· <기자의 눈> ‘전쟁반대’ 의견서 파문과 소신없는 인권위원의 행보(4.2 2면 2307호)	/138
· 인권위, 정보공개 소송단체 “유명무실” 모독(4.9 2면 2311호)	/149
· 국가인권위, NEIS 청문회 개최...인권적 판단 빨리 내야(4.9 2면 2311호)	/149



· 인권위 국내협력,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(4.16 3면 2316호)	/161
·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,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(4.23 2면 2321호)	/173
· 인권위 전략 논의, 인권단체들이 나선다(4.30 2면 2326호)	/184
· 인권위 몫은 '대립조정' 아닌 '인권적 판단'...NEIS에 대한 정책 판단, 인권 원칙에 충실해야(5.7 2면 2330호)	/192
· <기자의 눈> 인권위 밀실인선, 관행으로 굳어지나?(5.7 2면 2330호)	/192
· 인권위 권고, 후속 대응 절실...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(5.21 2면 2339호)	/212
· "말문은 텅지만 깊은 대화 부족했다"...인권위, 4개 지역 인권단체들과 간담회 가져(5.28 2면 2344호)	/223
· 인권위, 검찰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(6.4 2-3면 2349호)	/234-235
· "466일간 가축수갑 채운 것은 인권침해" - 인권위, 현재에 계구 사용 관련 의견서 제출키로(6.11 2면 2353호)	/243
· <기자의 눈> 유현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'소신' 발언 - 논쟁 그만하고 네이스 시행하자고?(6.11 2면 2353호)	/243
· 일회적 징벌 개선책 제시로는 안돼(6.25 2면 2363호)	/263

## 인권하루소식 고정란 및 기타

### 논평

· 촛불의 바다를 가르지 말라(1.4 1면 2248호)	/3
· <긴급논평> 인권위원 공개검증 절차 마련하라(1.11 1면 2253호)	/14
· '병역거부자'도 양심수의 대열에(1.18 1면 2258호)	/27
· 삼청교육 진실찾기, 국가가 나서라(1.25 1면 2263호)	/39
· 예고된 집단학살, 이라크전쟁을 막아라(2.15 1면 2276호)	/68
· 지하철 참사를 보며 경계해야 할 것들(2.22 1면 2281호)	/79
· 인권위원 밀실인사, 또다시 되풀이할 건가(3.8 1면 2290호)	/100
· 진정 전쟁의 공모자가 되려 하는가?(3.15 1면 2295호)	/111
· 유엔체제의 종말과 새로운 정글 질서의 도래(3.22 1면 2300호)	/121
· 우리 아이들이 겪는 '전쟁'에도 'NO'라고 말하자(3.29 1면 2305호)	/132
· '유서'까지 '대필'하며 이득을 챙기는 자 누구인가(4.12 1면 2314호)	/155
· "인권"을 명분으로 '북한 인민의 인권' 옥철 건가(4.19 1면 2319호)	/168
· 새정부 첫 사면, 인권개혁 변죽만 울린 건가(4.26 1면 2324호)	/178
· 이라크 민중에 대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(5.3 1면 2329호)	/189
· 권력의 입맛에 맞는 '사상'을 진상하라는 것인가(5.10 1면 2332호)	/195
·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(5.17 1면 2337호)	/207
· '인권'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(5.24 1면 2342호)	/218

· 청송 집단단식, 정녕 외면하려는가(5.31 1면 2347호)	/228
· 가축수갑 사용은 '고문'이다(6.14 1면 2356호)	/248
· 정부는 정보인권 보장 요구에 답하라(6.21 1면 2361호)	/258
· 56만원을 '최저임금'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(6.28 1면 2366호)	/268

### 인권이야기

#### ▷김정아의 인권이야기

· 아직도 '검문 중'(1.7 3면 2249호)	/7
· '인권영화' 홀대하는 인권위(2.4 2면 2267호)	/50
· 두레방 인순 언니(3.4 2면 2286)	/92

#### ▷한상희의 인권이야기

· 법원은 진정 인권탄압의 선봉에 설 것인가(1.15 2면 2255호)	/20
·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(2.11 2면 2272호)	/61
· NEIS - 그 국가감시의 폭력(3.11 2면 2291호)	/103

#### ▷김혜진의 인권이야기

· 인간존엄 회복투쟁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(1.21 2-3면 2259호)	/30-31
· 어쩔 수 없는 것이란 없다(2.18 2면 2277호)	/71
· 나의 '동지'들(3.18 2면 2296호)	/114

#### ▷이영일의 인권이야기

· 정치의 비민주화와 학술권력의 재생산(1.28 2면 2264호)	/42
· 과거청산 없이 민주주의의 완성도 없다(2.25 2면 2282호)	/82

#### ▷이창호의 인권이야기

· 이라크 전쟁과 인권운동의 과제(3.23 2면 2301호)	/124
· 인권에 관한 단상(4.22 2면 2320호)	/171
·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(5.27 2면 2343호)	/221

#### ▷이주영의 인권이야기

· '병' 보내고 약 보내자는 것인가? - 의료병 파병이 인도적 차원이라는 해괴한 주장(4.1 2면 2306호)	/136
· 반전평화수업, 심판대에서 내려라!(4.29 2면 2325호)	/181
· 에바다의 숙제(6.3 2면 2348호)	/232



### ▷김철준의 인권이야기

- 이제 '우리'의 반전운동을 준비하자(4.8 2면 2310호) /147
- 인권의 감수성(5.13 2면 2333호) /199
- 연예인의 인권은 무관심에서 출발한다(6.17 2면 2357호) /251

### ▷박영희의 인권이야기

- 장애여성 선회의 4월(4.15 2면 2315호) /158
- 장애인 마네킹이 아니다(5.20 2면 2338호) /210
- "엄마가 장애인이니까..."(6.24 2면 2362호) /261

### 만화사랑방

- 한미SOFA개정의 그날까지! 자주와 평화의 그날까지!(1.3 1면 2247호) /1
- 류국현 - 반인권 전력 가진 인권위원 선임(1.10 1면 2252호) /12
- 목숨줄 자르는 손배·가압류(1.17 1면 2257호) /25
- '삼청교육', 뜨거운 진실과 차가운 현실(1.24 3면 2262호) /38
- 노동 유연성이 높아지면...(2.7 1면 2270호) /56
- 평화와 명예를 위한 응징이라고?(2.14 1면 2275호) /66
- 국민이 대통령이라더니...(2.27 1면 2284호) /86
- 학교괴담 - NEIS(3.6 1면 2288호) /96
- 투명괴물, 보안관찰제도를 잡아라!(3.13 1면 2293호) /107
- '21세기 히틀러'의 미친 노래(3.20 1면 2298호) /117
- 우리는 반전 삼남매(3.27 1면 2303호) /128
- 검찰총장 후보, 전투준비완료?(4.3 2면 2308호) /141
- 치료중이라니?(4.10 1면 2312호) /150
- 전교조, 끌어버려!(4.17 1면 2317호) /162
- 전쟁광이 쏘아 올린 공포탄(4.24 1면 2322호) /174
- "나이스"를 경배하라(5.1 1면 2327호) /185
- 노동자의 공동묘지 - 건설현장(5.8 1면 2331호) /194
- "힘도 좋아, 아직도야?"(5.15 1면 2335호) /203
- 도대체 누가 누굴 굴복시키려는 거지?(5.22 1면 2340호) /213
- 입맞춰 깨워라(5.29 1면 2345호) /224
- "인적자원강탈부, 납시오"(6.5 1면 2350호) /236
- 지금은 어린 '촛불'이지만...(6.12 2면 2354호) /245
- '최저'임금제라요? '최고'임금제예요(6.19 1면 2359호) /254
- 개인정보 다 내놔!(6.26 2면 2364호) /265

### 클릭! 인권정보자료

- 「한국어린이·청소년의 인권-진주지역 사례연구」(1.15 1면 2255호) /19
- 「평화는 힘이 세다」 「너와 나는 정말 다를까?」(1.22 2면 2260호) /33
- 「저항, 연대, 기억의 정치 1, 2」(1.30 1면 2266호) /45
- 「시민의 권리 - 정보공개청구」(2.5 1면 2268호) /52
- 「근대자본주의사회와 아동 - 아동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조건의 탐색」(2.12 2면 2273호) /63
- 「여성권과 '신체에 대한 권리'에 대하여 - 성매매를 중심으로」(2.19 1면 2278호) /72
- 「사회권규약 해설서 1 -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」(2.28 1면 2285호) /88
- 「서준식의 생각」(3.7 1면 2289호) /98
- 「2002 검열백서」(3.14 1면 2294호) /109
- 「나는 평화를 꿈꿔요 - 옛 유고슬라비아 어린이들의 눈에 비친 전쟁의 여러 모습」(3.21 2면 2299호) /120
- 「성적 소수자의 인권」(3.28 2면 2304호) /131
- 「애들아, 인권공부 하자」(4.4 3면 2309호) /144
- 「에이즈는 없다 - HIV/AIDS 가설의 옷 벗기기」(4.11 1면 2313호) /152
- 「지문날인 반대연대 백서」(4.25 1면 2323호) /176
- 「정신분석학, 문학, 정치의 측면에서 본 여성장애인」(5.16 1면 2336호) /205
- 「59차 유엔인권위 북한인권 결의안과 북한인권 접근법」(5.23 1면 2341호) /215
- 「인권, 그 위선의 역사」(5.30 1면 2346호) /226
- 「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한국정부 2차보고서 관련 자료집」(6.6 1면 2351호) /238
- 「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- 인권의 무덤 청송감호소」(6.13 1면 2355호) /246
- 「왼쪽에서 본 지적재산권」(6.20 1면 2360호) /256

### 인권영화/ 7회 인권영화제

- <다섯 번째 반딧불> 착한 쿠르드 나쁜 쿠르드, 산 말고는 친구가 없다(1.16 3면 2256호) /24
- <새로 나온 인권비디오>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III(1.18 2면 2258호) /28
- <여섯 번째 반딧불> 아르헨티나 노동운동의 새 기운, '빠게페로스'(2.15 2면 2276호) /69
- <일곱 번째 반딧불> 사북과 이라크의 진실을 만나다(3.14 2면 2294호) /110
- 5월 23일-28일 제7회 인권영화제 개최 - 이주노동자 인권을 말한다(4.10 2면 2312호) /151
- <여덟 번째 반딧불> 모략당한 이들의 분노의 증언, <내 딸 없이>(4.17 2면 2317호) /163
- 미국의 전쟁 광기를 고발한다 - 7회 인권영화제, 미 정부 학살 고발 영화 상영(4.24 2면 2322호) /175
- 억압당한 사람들에게 대한 기록 - 올 인권영화제 국내 상영작, <우리는 이주노동자다> 등 12편 확정(5.3 2면 2329호) /190
- 험난한 남미 역사 기록한 3편의 영화(5.8 2면 2331호) /195
- 최장기수 김선명의 '보이지 않은 전쟁', <선택> - 갇힌 삶 사실적으로 재현...인권영화제 개막작 선정(5.15 1면 2335호) /203
- 7회 인권영화제가 선사하는 특별한 만남 -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개막식과 특별행사 풍성(5.22 2면



2340호)	/214
· 제7회 인권영화제 상영 일정(5.23 2면 2341호)	/216
· 7회 인권영화제 막 올라 - '이주노동자 인권' 주제...개막작 <선택> 감독의 한마당(5.24 1면 2342호)	/218
· 7회 인권영화제 막 내려 - 올해의 인권영화상, 김성환 감독의 <김종태의 꿈>(5.29 2면 2345호)	/225
· 제7회 인권영화제를 돌아본다 <상> - 최초 제작지원, 이주노동자 유니버스 진한 감독(6.5 2면 2350호)	/237
· 제7회 인권영화제를 돌아본다 <하> - 도전에 직면한 '무료상연' 원칙(6.6 2면 2351호)	/239
· 여성 철도노동자 아픔 담은 다큐 <소금> - 모성까지 깃밟는 살인적 노동현실 고발해(6.20 2면 2360호)	/257
· 레미콘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투쟁 - 영화 <노동자다 아니다> 완성 앞뒤(6.27 2면 2365호)	/267

### 주간인권흐름

· 2002년 12월 23일 ~ 2003년 1월 6일(1.7 3면 2249호)	/7
· 1월 7일 ~ 1월 13일(1.14 3면 2254호)	/18
· 1월 13일 ~ 1월 20일(1.21 3면 2259호)	/31
· 1월 20일 ~ 1월 27일(1.28 2면 2264호)	/42
· 1월 27일 ~ 2월 3일(2.4 2면 2267호)	/50
· 2월 4일 ~ 2월 10일(2.11 2면 2272호)	/61
· 2월 11일 ~ 2월 17일(2.18 2면 2277호)	/71
· 2월 18일 ~ 2월 24일(2.25 2면 2282호)	/82
· 2월 25일 ~ 3월 3일(3.4 2면 2286호)	/92
· 3월 4일 ~ 3월 10일(3.11 2면 2291호)	/103
· 3월 11일 ~ 3월 17일(3.18 2면 2296호)	/114
· 3월 17일 ~ 3월 24일(3.23 2면 2301호)	/124
· 3월 24일 ~ 3월 31일(4.1 2면 2306호)	/136
· 3월 31일 ~ 4월 7일(4.8 2면 2310호)	/147
· 4월 7일 ~ 4월 14일(4.15 2면 2315호)	/158
· 4월 14일 ~ 4월 21일(4.22 2면 2320호)	/171
· 4월 21일 ~ 4월 28일(4.29 2면 2325호)	/181
· 4월 28일 ~ 5월 12일(5.13 2면 2333호)	/199
· 5월 12일 ~ 5월 19일(5.20 2면 2338호)	/210
· 5월 19일 ~ 5월 26일(5.27 1면 2343호)	/220
· 5월 26일 ~ 6월 2일(6.3 2면 2348호)	/232
· 6월 2일 ~ 6월 9일(6.10 2면 2352호)	/241
· 6월 9일 ~ 6월 16일(6.17 2면 2357호)	/251
· 6월 16일 ~ 6월 23일(6.24 2면 2362호)	/261

### 이달의 인권

· 2003년 1월(1.30 3면 2266호)	/47
· 2003년 2월(2.28 2면 2285호)	/89
· 2003년 4월(4.2 3면 2307호)	/139
· 2003년 4월(5.1 2면 2327호)	/186
· 2003년 5월(5.31 2면 2347호)	/229

### 기타

· <인권운동사랑방 10돌 특집> 사랑방 활동가들에게 바란다(3.5 2면 2287호)	/94
· <인권운동사랑방 10돌 특집> 활동가들의 회상과 다짐 - 10년의 길 위에 '진보적 인권운동'의 꽃대를 세운다(3.5 3면 2287호)	/95
· <성명>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? -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(5.23 3면 2341호)	/217



# <인권하루소식> 합본 20호

펴낸 날 : 2003년 10월

펴낸 곳: 인권운동사랑방

- 주소 (110-522)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-29 3층
- 전화 02-741-5363 / 팩스 : 02-741-5364
- 이메일 [humanrights@sarangbang.or.kr](mailto:humanrights@sarangbang.or.kr)  
[rights@chollian.net](mailto:rights@chollian.net)
- 홈페이지 <http://www.sarangbang.or.kr>

값 1만원